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82 **5** 월호



“가정의 달에 한마디”

— 어린이 · 어버이주일을 생각하며 —

5월은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이 함께 있는 달이다.

매년 맞는 가정주잔이지만 올해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아름다운 5월이 되면 좋겠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자라고, 행동하며, 부모의 사랑을 받고, 이웃의 어른들에게 칭찬받는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하고 어버이가 자식들로부터 공경을 받음은 물론, 어버이의 언행심사 모두가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는 교훈적이고 실천적인 어버이들이 되어야 하겠다.

특히 크리스찬들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다. 자녀와 부모는 가정이라는 공동 울타리에서 고락을 같이하며, 예절과 가정교육을 함께 받게 된다. 어린이의 진실한 말 한마디, 표정에서 새로운 삶의 의지를 터득할 수 있고, 어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식들이 본을 받아 착하고 굳건하게, 진실되게 살려는 의욕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식과 어버이는 한 배에 탄 선원들로서 풍파가 심한 가정의 항해길을 순탄하게 노저어 갈 수 있다는 결론이다.

한 쪽이라도 자칫 잘못하여 노를 짓지 않는다면, 젓던 노를 던져 버릴때 가정이란 배는 앞으로도 나아갈 수가 없고, 결국에는 침몰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비바람, 풍랑속의 현실적인 인간생활에서 가정의 삶이 중요시되고 신장(가장)의 인도가 얼마나 귀중한가를 다시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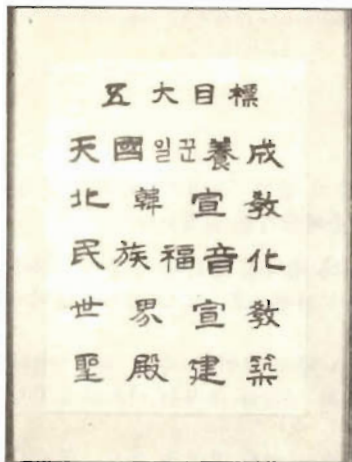
생각해 보야 한다. 지금부터 100년 해기지만 미국과 전 영국, 전 세계에 부흥의 불길을 번지게 했던 무디선생은 순종하는 어린이였다. 미장이 일을 하시던 아버지가 그의 나이 다섯살 때 돌아가시고 가난한 가정에서 홀어머니의 가정교육을 받으며 성실하게 양화점 직공과 외관원 생활을 해가며, 성경을 읽고 기도생활을 하여 세계 최대의 주일학교로 발전시킨, 오늘의 무디학교를 설립했다. 무디의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돕는 것보다 날마다 성경구절을 한절씩 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지도하고,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일엔 성경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시켰다고 한다.

이런 교육을 시킨 어머니도 장하지만 이를 순종한 무디도 강한 어린이였기 때문에 오늘날 큰 축복과,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흠모의 대상이 된 것이다.

우리는 5월 가정의 달에 형식적인 부모공경, 가증스런 어린이 사랑을 불식하고 정이 듬뿍 담긴,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배주는 희생적인 어른 공경과, 자녀사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자.

웃고고리 웃고름 옆에 꽃 한송이 달아주는 외식적인 공경이라든가, 과자 한봉지 선물로 주는 어린이주일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반생하여 주님이 가르쳐준 참된 사랑을 전해주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한다.

요즈음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되고 있는 이때, 불효자식, 악한 어버이가 되어 이웃에게 저주스런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값없이 주신 주님의 사랑을 5월 푸른 하늘에 띄워 보내자.



총현교회의 신조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천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제10권 제5호 · 통권99호

1982년 5월호 차례

권 두 언/ 가정의 달에 한마디	손경수 · 2
이달의 말씀 /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김창인 · 4
지상 특강 / 교회성장과 전도	이호문 · 6

□특집/노인심방을 하고나서□

• 아직도 젊은 노인들	김원남 · 9
• 성경적 노인관과 총현의 노인들	조영길 · 10
• 천국의 소망을 심어 드리자	김연이 · 12
• 늘 호도의 꿈을 설계하자	정복인 · 13
• 축복속에 사는 노인들	이세열 · 14
•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이승근 · 15

월간 **총현**

The Monthly Chung Hyeon

[특별개재]

• 진화론	편집부 · 16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④]	
• 그리스도인의 가전관	홍정길 · 22
[김창인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⑤]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김창인 · 28
[평신도를 위한 칼빈주의 해설 ⑩]	
• 칼빈주의 사회관	김하진 · 26

5월의 시/ 기도	김은숙 · 29
연재 칼럼/ 여린 마음	이건숙 · 18
편집실칼럼/ 최소한의 수준	이형수 · 20
물 댓 돌/ 초원의 집	편집실 · 20
책 소개/ 성경연구집문	이형수 · 21
찬송가감상/ 저 북방 얼음산과(새552)	김하진 · 21

기관 소개/ 장년 새 신자 [· II부]	편집실 · 25
신앙 수필/ 시모님의 사랑과 신앙 유산	박월희 · 30

선교사· 선교지소식	32	교 계 소 식	34
이달의 교우 동정	35	교 회 소 식	36
5월의 행사	38	편집하고나서	38

표지 설명 / 가정의 달을 맞아 「노인」에 관한 특집을 꾸미며 소외되어 가는 노인들을 생각해 본다. 금년엔 특히 UN에서 정한 「노인의 해」이기에 더욱 교회 밖에서도 노인에 대한 관심이 드높다. 특집을 통해서 살펴본 「총현의 노인」들은 무척 긍정적이고 밝다. 늘 곁에서 모시고 존경하며 공경하는 총현의 식구들이 되기를 따라며 경로회에서 즐거운 한 때를 사진에 담아본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행 18:1-15〉

이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업이 같으므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행 18:1-4〉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다 핍박을 당하여 밤중에 배워야 지방으로 옮기셨고 여기서 전도하다 다시 아덴으로, 또 고린도로 옮기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때마침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오는 그 당시 로마에 사는 외국인들에게 로마에서의 추방령을 내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쫓겨 고린도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과 만난 이들 부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바울의 전도를 전적으로 돕게 되었습니다. 이들 부부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생각해 봅시다.

1. 하나님의 종과 동고동락하였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행 18:18)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너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 놓았느니라」(롬 16:3,4)

바울이 즐거울 때만 같이 한 것이 아니고 괴롭고 어려울 때에도 같이 선한 일에 협력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양반이었으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장막짓는 기술을 배워 자립하는 선교사로 전도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장막업을 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바울을 만나 노동군으로 월급을 주고 바울을 부렸으나 함께 생활하는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바울이 전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얼마나 잘하였는지 로마서 16장에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 놓고라도 자신을 보호해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고 있으며 여러가지로 주의 종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이 힘과 마음과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주의 종들과 동고동락하시는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자신의 부족을 알고 겸손하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처음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에는 노동군으로 알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는 예수님을 이 부부가 생명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자신들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자세하던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제는 바울을 섬기며 겸손해졌습니다.

3. 직업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고전 16:19)

이 말씀은 장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교회가 되

어 장막짓는 공장이 복음 전하는 곳으로 그 목적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처음에는 사업의 목적이 많은 이익을 남겨 부자될 꿈을 가지고 장막을 만들었으나 바울 사도의 전도를 받은 다음에는 그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면 그것으로 바울의 전도 사업을 뒷바라지하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며 선교사를 보내는 것 등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 목적으로 사업을 해 나간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부지런히 벌고 일하는 사람은 놀고 얻어 먹거나 빼앗아 먹는 사람보다는 나으나 하나님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만배나 귀합니다. 우리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것일진대 우리가 사는 동안 하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목적으로 하고 일해야 하겠습니다.

4. 언제나 담대하여 무서운 것 없이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아볼로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세상지식뿐만 아니라 성경지식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에 나타나 설교를 할 때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들이 바울에게 1년 반 동안 배웠으므로 아볼로의 가르침에 좀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아볼로를 저들의 집에 데려가 같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겁내지 말고 전도하여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다(마 28:19).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세상지식과 권세에 눌리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딸의 위치에서 만민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5.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가가 임금을 높이면 임금의 총애를 받게 되고 자녀가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여 효도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느 부모님을 막론해 놓고 다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부모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에게는 사랑이 더 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모셨고 그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기 위하여 풀무불을 사양치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 모든 사람 앞에 존경받게 하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고 주의 신실한 종을 존중히 모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바울 사도의 축복을 한없이 받아 성경에는 이들의 이름이 네번이나 기록될 정도로(행 18:2; 롬 16:3; 고전 16:19; 딤후 4:19)교회 안에 덕을 세웠고 천주에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충현교회 성도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존중히 모시며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종과 동고동락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몸과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사업의 성공으로 영육간의 부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교회성장과 전도

=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어 =

교회성장을 목표로 하고 교회를 진단해 보려면 우리는 그 목표를 초대교회로 삼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도행전을 몇 부분으로 나누어 사도시대 교회가 전도를 통하여 교회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킨 사실을 살펴보자. 1장부터 6장 7절까지는 예루살렘 선교시기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 선교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성행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점점 많아졌다”고 하였다. 6장 8절부터 9장 31절까지는 사마리아 지역의 선교에 대한 기록으로 기독교가 팔레스타인에 퍼졌고 스테반의 순교와 사마리아에서의 선교가 기록되었고 후반부에는 온 갈릴리 교회가 든든히 서서 주를 경외했다고 하였다. 9장 32절부터 12장 24절까지는 바울의 회개, 안디옥 확장,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 더 뻗어나간 사실이 기록되었다. 12장 25절부터 16장 5절까지는 아시아 지방 교회가 확장되고 갈라디아 선교가 나타나며 16장 6절부터 19장 20절까지는 바울의 로마전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팔레스타인, 사마리아, 유럽을 거쳐 로마까지 확장된 것을 볼 때 사도시대의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겠다.

흔히 초대교회를 우리는 오순절 교회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오순절 날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120명이



이 호 문 목사
(인천 송의감리교회 담임)

성령을 받고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는 어떠했는가? 모이기를 힘쓰고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와 간증, 찬양, 그리고 말씀상고로 나타났다.

1. 초대교회의 특성

간단하게 살펴본 초대교회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여 구분해 보자.

1) 교육하는 교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행 2:42)

교회의 사명이 기록한 예배와 교육, 그리고 친교, 지역사회를 위한 소금과 빛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 때 가르치는 분야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

사가 충만하여 박수나 치고 부흥회만 하는 시대가 아니었나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말씀을 상고하며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

2) 교제하는 교회

초대교회는 친교하는 교회였다. 가장 좋은 친교의 모임으로 어떤 학자는 이 모임을 최고의 모임이라고 지적했다.

3) 기도하는 교회

그들은 사람과 말하기 전에 하나님과 대화했고 세상을 함하기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다.

4) 경건한 교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2:43)

두려움이란 경건을 말한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떨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5) 기사와 이적의 교회

초대교회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고 오늘날 우리교회도 이러한 이적은 필요하다. 교회는 병든 자를 고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성령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6) 유무상통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

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 초대교회는 사랑이 끊어 넘치는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겠다.

7) 합심단결하는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2:46, 47)”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였다. 합심단결은 부흥의 비결이요, 선교의 요소가 됨을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음을 합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고 오순절 성령강림은 실제 그대로 초대교회 활동에 등장했다. 이렇게 볼 때 성령은 모든 지도력의 원천이 되었고 모든 전도자와 선교자들을 움직였다.

또한 초대교회중 소아시아에 위치한 잘못을 지적받은 몇몇 교회를 살펴보자. 첫사람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발람의 교훈을 지킨—우상을 섬긴—버가모 교회,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와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와 같은 사데 교회, 차지도 더움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볼 때(계 1:11~3:17) 이들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

2. 교회의 성장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를 사도행전 18, 19 장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에베소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의 도시였고 기독교인을 잡아 사자밥이 되게 하는 살인장까지 갖춘 도시였다. 이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웠다. 바울은 다시 고린도 지방으로 떠나



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에베소에 보냈다. 그런데 이 아볼로는 세상의 많은 학문을 알고 성경에 능한 자였으며 주의 도를 배워 알아 가르치기까지 하였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여 성령없는 목회를 한 것이다.

그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자 이 사람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고 말하였다. 바울이 다시 주의 도를 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서서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받은 열두명의 제자들은 흠어져 열심히 전도하였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에베소 교회는 날로 부흥되어 마술을 행하며 금신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교회로 물려들게 된 것이다.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려면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받고 항상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행 19:20)”

3. 전도의 종류

성령충만을 받은 교회는 많은 사

람을 복음으로 감화시켜 무엇보다 전도에 대해 힘을 기울이게 된다. 많은 전도가 있었으나 오늘날 필요하고 해야 하는 전도의 종류와 그 방법에 대해 몇가지로 살펴보자.

1) 무언(無言)전도

행함으로 전도한다는 뜻이다. 오늘날 복음전파는 발달된 매스컴과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회마다 스피커를 달아 차임벨을 울리고 방송과 문서로 외쳐대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행동으로 그 복음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다운 복장과 언어, 태도 등으로 전도할 수 있도록 말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전도가 필요하다.

2) 개인전도

오늘 교회가 사용하는 가장 기초적인 전도방법이다. CCC 전도방법이 매우 활발한데 거기서 사용하는 사영리는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좀 어려운 전도지이다. 교회에 맞게 토착화시켜 사용을 잘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이 전도한 후에 그 전도한 사람을 주

수할 때까지 연관을 갖고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더라도 한 두사람 영혼을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3) 가정전도

전 가족이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은 날개없는 기러기와 같이 외롭다. 평소에 평안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불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부작용은 생각밖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이 가정전도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면 전도한 사람을 제대로 성장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4) 직장전도

기업주들은 부조리한 사회의 기강을 바로잡는 방법을 자기들의 기업에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직장에배를 통해 상하가 구분되어 질서가 잡히고 영업의 이윤이 흑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 차 재미있는 것은 사장은 예수믿지 않아도 직장에배를 청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행해 나가면 놀라운 전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5) 대중전도

인간은 큰 힘 앞에 무력해진다. 한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들도 맘모스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돌아오는 경우를 우리는 73년 빌리그래함, 74년 엑스포로, 77년 민족복음화, 그리고 80년 세계복음화를 통하여 보아왔다.

6) 매스콤 전도

미국에는 주일날 채널만 돌리면 예배, 설교, 찬양, 기도가 실 새없이 방영된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밀접하고 떨어질 수 없는 이 매스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

7) 황금어장 전도

황금어장이라면 군부대와 학원, 또한 형무소가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 인구중 23.6%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나와 있는데 진해 해군사관학교의 경우를 보면 40% 이상이 기독교인이라고 한다. 또한 학생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복음

을 전하여 그들에게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소외되고 질시받는 죄수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무엇보다 중요한 전도중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또한 나라의 권력을 가진 고위층의 복음화, 인기층인 연예인들의 복음화, 맘모스 신용백화점을 운영하여 상호의 기강과 친절, 원리 등 생활로 나타내 보이며 전도하는 방법, 유아교육을 담당한 보육대학이나 교사양성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복음을 심어주는 방법의 전도도 필요할 것이다.

교회성장과 전도는 뗄 수 없는 관계로 마치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바다에 있는 개의 다리를 잘라버린 것과 같을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는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고 꼭 필요한 때라고 생각된다. 전도인은 훈련을 받고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어려운 때를 만나 힘들어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전도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고 그들과 우리에게 기쁨이 되도록 우리 모두 전도에 힘을 기울이고 앞장서야 하겠다. (*)

* 교우기업소개 *

창업 49년의 신용



남 문 당

전화 : 598-3776, 599-3776

金正泰 집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본관 2층 5호로 이전

아직도 젊은 노인들

일할 기회를 마련해 드리자



김 원 남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장〉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께서서는 나이 많으신 성도들을 위해 새해가 되면 연초에 한분 한분 찾아가 위로하며 축복하는 「노인 심방」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이 많으신 성도들을 돌아본다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나이 많아지면 기력이 쇠하여지고 정신력이 약해지고, 몸의 활동도 둔해지므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도외시되는 일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세계에서는 나이 많은 분일수록 더욱 천국 시민의 확고한 자격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할 때이며 또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위해 힘써 일하는 일로 한평생 역사의 종지부를 찍어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야말로 신앙자로서 마치고 바울사도와 같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개선의 함성을 울려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나이 많으신 성도들을 찾아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새 힘을 안겨주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이제 이런 귀한 「노인」을 위한 심방」을 하면서 몇가지 느낀 점을 지면의 제한을 받으면서 한두어 가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1. 70세가 넘는 성도들이 70세가 넘어도 나이 답지않게 젊다는 점입니다.

옛날 같으면 45세 이상만 되어도 할아버지라고 불려도 평범했는데 지금 70세 넘는 성도들을 할아버지 할머니 하기에는 너무도 젊다는 것입니다. 건강도 정신도 신앙도 젊게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우리를 노인이라 하지말라」고 하며 「노인반이라고 끌려 들어가니 노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 말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젊습니다. 이분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 꾸준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대로 전널목에 나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고 낮으로는 공원에 찾아가 열심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 70세가 넘는 성도이나 일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70세 이상이 됐다고 일거리를 주지 않고 있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자연 지역 사회에서는 도외된 것과 같은 소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적령이 없었으면 좋겠다」 또 「심방을 할 수 있어요. 젊은이보다 우리가 도리어 경험이 많고 낫지요」.

이제 이런 70세가 넘는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와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노인들을 더욱 배나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말만이 아니라 적극성을 띄고 공경하는 길을 연구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 자신들이 모

르게 가정배배에 참여하지 않아도 「같이 예배를 드립시다」 한마디도 없이 지나는 큰 실수가 없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적은 일로 노인들로 노여움을 사게 해서는 안되겠습니까.

둘째, 70세이지만 젊음을 간직한 노인들에게 젊은 기백을 가지고 주를 위해 멋있게 살도록 소외감 같은 것을 안겨주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줍시다.

한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지금 노인들 중에는 글쓰는 명인, 글짓는 유명시인 그림 그리는 화백 등 쟁쟁한 솜씨를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모아 주님 영광위하여 주님의 사업을 위하여 병풍이나 족자를 만들거나 성화를 그리면서 가장 보람있는 일을 하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심방할 수 있는 분들 위해 어떤 기간만이라도 심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나이 많은 성도님들 천국일군의 일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힘써 온 성도들이 조심하여 받들어 주고 축복하며 새 힘을 안겨주어 한평생 하나님 높이고, 이웃에게 선을 끼치고 민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안겨주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칭찬거리가 되는 삶을 가지도록 해드려야 하겠습니까. (*)

부모효도·노인공경은 만고불변의 성경진리

성경적 노인과 충현의 노인들



조 영 길 목사

(심방위원회 위원·4지구 심방담당)

첫째: 성경적인 노인관

1. 노인이란 용어

1) 자켄(Záqén): 수염, 수염이 희다는 뜻이다. 그래서 노인, 늙은, 연로한 등으로 번역된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60대 혹은 70대 노인을 가르치는 듯하다(창 18:12; 19:31; 삼하 19:32; 시 37:25 등).

2) 세바(Sébáh): 흰 머리란 뜻이다. 그래서 흔히 백발로 번역된다. 그리고 늙음, 노년등으로도 번역한다(룻 4:15; 시 92:14). 보통 70대 노인을 가리킨다(창 15:15; 42:38; 시 71:18).

3) 야시스(Yasis): 흔들린다는 뜻으로 노인, 늙은 자, 연로한 자 등으로 번역된다(욥 12:12; 15:10; 29:8; 32:6 등). 주로 80대 노인을 가르치는데 사용하고 있다. 욥 32:6; 15:10).

4) 프레스비테로스(Presbiteros): 장로(마 15:2; 16:21; 26:3; 막 7:3; 눅 7:3; 행 4:5 등), 늙은이(행 2:17; 딤후 5:1), 노인, 옛사람 등 다양하게 번역된다.

2. 노인의 한계

미슈나의 아보트(Mishna's Abot)에서는 60세가 되면 지크나(Ziqna: 노인)라 하였고 70세가 되면 세바(Sébáh: 백발)라고 불렀다. 모세는 시 90:10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 하였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노인"이라 부를 수 있는 나이는 60세로 보는 것이 알맞은 것이다. 레 27:1-8의 서원에 대한 규례에서 장정과 노인을 구분한 나이는 60세로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60세 이상된 노인이 드리는 속전은 젊은이들이 드리는 것보다 적게 하였다.

3. 노인의 현상

노인에게 나타나는 육체적 현상에 대하여 성경은 많은 것을 보여준다.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수염이나 흰머리이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지고(창 27:1; 삼상 3:2; 4:15, 18).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감각 기관의 쇠퇴가 온다.(삼하 19:35). 또한 다윗의 경우는 늙어 온 몸이 오한에 시달렸고 한 동녀(童女)로 하여금 그를 감싸 따뜻하게 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다(왕상 1:

1-4). 전 12:1-5에는 노쇠에서 비롯되는 여러가지 현상 내지는 질병들을 묘사하고 있다.

4. 경노(敬老)에 대한 교훈

레 19:32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출 20:12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엡 6:1-3 참고).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하여야겠다. 노인에 대한 존경과 효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함께 요구되며, 십계명중의 인륜에 있어서 그 첫번째 계명이 효에 대한 것이다. 경노와 효도에 대한 말씀은 전체 성경에 널려있다. "부모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지며"(잠 20:20). 불효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쏘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고 하였다. 이와같이 경노에 대한 교훈은 적극적이며 명령적이다.

둘째: 충현의 노인들

1. 노인 대심방

저는 지난해 연말에 충현교회로 부임하여 금년초에 처음 노인심방에 임하였으므로 그 유래에 대하여는 분명히 모른다. 듣기로는 전에는 신년초에 70세 이상되신 어

른들을 새해 인사겸 당회장 목사님이 직접 심방하셨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위로하셨다고 하였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당회장 목사님의 목회방침의 일면으로 본다. 흔히 교회에서 경노에 대하여서는 매년 5월 둘째 주일 부모님 주

일에만 한번 정도 설교하고 노인들을 위한 어느 부서에서는 모임 정도로 끝내버리고 일년내내 잊고 지낸다. 그런데 연초에 특별히 노인 심방 제도를 특별히 찾아 보는 노인 심방 제도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르겠다.

2. 노년부 운영

70세 이상 되신 노인들을 주일날 따로 모여 예배와 친교의 시간을 가지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로 본다. 금년초에 노인들을 위하여 당회장 목사님이 대접하시고 몇 주일 전에는 지도 목사님이 정성껏 떡을 마련하여 대접하는 것을 듣고 보았다. 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 그리고 매 주일 대용식이긴 하지만 중식을 교회에서 대접한다는 것도 그렇다.

이렇게 우리 교회가 노인들을 위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일인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3. 느낀 점

금년도 우리 교회 노인 심방 대상자들은(70세 이상) 모두 500명이었고 내가 맡고 있는 제4지구만 해도 81명이나 되었다. 그중에 여러가지 사정으로 13명을 제외하고서는 다 찾아 뵙게 되었다. 그들 중에는 와중에 계시는 분도 계셨고 출입도 못하시고 말씀도 못하시어 대화도 되지 않는 분도 계셨다. 예수님 이름으로 찾아 문안하며 주님의 말씀으로 복을 빌며 위로하며 건강과 평안과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 드리기도 하고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비록 작은 것이긴 하지만)을 드릴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물었다. 그들은 모두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고 반가이 맞이하여 주셨다. 노인 심



〈노인들은 아직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분이 많다. 그 분들에게 합당한 일거리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방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본향으로 거처를 옮기신 이들도 여럿이 계신다. 노인 심방이 없었다면 그분들을 가정에 조용히 찾아 뵙고 믿음의 최후 점검과 확증하여 보는 기회가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본다.

노인들은 자주 심방하여 주기를 기다렸고 여러가지 쌓인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 무엇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대답과 격려 내지는 풍성한 위로, 소망은 큰 기쁨이 되는 것이다.

4. 제언

금년에 와서 정부 시책에도 경노에 대한 것이 활발하다. 예를 들면 노인 우대증을 발급한다든지 노인 정을 짓는다든지 '나라에 충성 부모에 효도'라는 교육이라든지... 종

은 현상이다. 나라나 교회나 노인들을 멸시하고서야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면에서도 그러하겠지만 경노에 대하여서는 우리 교인들이 뒤지면 아니된다. 좀 더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대접하며 섬기고 구체적인 계획과 연구가 있어야겠다. 심방은 물론이요 교회에서 절대로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노인들을 잘 대접하고 가까이하며 노인들의 전도에 힘쓰는 전도 전략적인 면에서도 연구가 있어야겠다. 젊은이들과 자녀들로 하여금 경노와 부모 효도에 대한 철저한 교육도 있어야만 하겠다. 핵가족 제도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사상이 범람하는 젊은 세대들은 우리를 슬프게 한다. 경노하고 늙은 부모님 효도하여 복받는 성경의 진리는 만고 불변의 법칙이다(출 20:12; 엡 6:1-3).

효(孝) 중의 효는 믿음의 선물

천국의 소망을 심어드리자



김 연 이 전도사

(심방위원회 위원·6지구 심방담당)

“노인!”

이 한 단어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우수(憂愁)의 연륜과 애환의 오랜 여정(旅程)을 읽는다.

청년과 같이 희망에 찬 힘있는 발걸음보다는 인생의 황혼에서 무언지 아쉬운 애뜻함마저 느낀다.

노인심방을 하면서 여러 모습의 노인들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사후에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 채 담담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처절한 불신앙의 노인을 보기도 한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도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심령 속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믿음안의 어

린아이 같은 노인을 볼 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세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힘찬 아멘을 연발하시는 노인을 보게도 된다.

불신앙의 노인에게는 참으로 피곤하고 소금에 절여진 야채처럼 죄의 그늘이 온 육신과 심령을 절여놓아 내부까지 시들어진 비참한 모습을 본다.

그러나 참으로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날마다 찬송과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교제하는 노인을 만날 때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사도 바울의 고백(고후 4:16)이 실감있게 피부에 와 닿는다.

오랜 노환에 계시면서도 낙심치

않고, 육의 장막이 무너지면 영원한 안식처로 옮겨갈 것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소망으로, 쇠약한 손으로 목사님의 손을 잡고 파르르 떠는 듯한 눈망울로 주님 보듯이 주의 종을 바라보는 빛나는 눈을 볼 때에는 오히려 위로와 은혜를 받고 돌아온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어버이날이 있는 달이기도 하다.

우리의 조부모님, 부모님에 대한 효(孝)는 과연 무엇일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드리지 못한 채 육신의 평안만 치중하여 쉬이 올 재앙의 날을 의식치 못하는 자손이 참으로 효도하는 것일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헤드리고 육신도 알뜰히 보살펴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것, 주님 계시는 천국의 소망을 안겨드려서 날로 새롭고 힘있는 여생을 사시도록 “믿음”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효중의 효가 아닐까 한다.

환란 중에도 낙심치 않으며 날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힘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님들께 미숙하나마 작은 시 한편을 선물로 드립니다.

인생의 수레바퀴 너 굴러간 자리여,
자욱마다 우수와 고뇌가 잠겼으랴
그러나 그 자욱 위에 사라질 것이
어라

한 구비 돌 때마다 힘있는 줄음이
너 어디서 왔는가 그 생명 그 능력
영혼 속에 샘솟는 주님의 권능이
어라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대 사이에
저주의 십자가로 촛점 맞추어
그 촛점 달는 곳에 그대 죄가 타어
라

이 한구비 돌면 영원한 안식처
비통도 애수도 병약도 없는 곳
찬송의 수레바퀴 영원히 구르리

이 땅에서 평안하게 헤드리고 육신도 알뜰히 보살펴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귀한 것, 주님 계시는 천국의 소망을 안겨드려서 날로 새롭고 힘있는 여생을 사시도록 “믿음”의 선물을 드리는 것이 효중의 효가 아닐까 한다.

정초가 되면 뒤편을 찾아 뵙는 우리나라 풍습은 아름답기만 합니다.

충현교회에서는 연초가 되면 70세 이상의 어른들을 찾아 뵙는 노인 대심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제5계명을 실천하는 교회적 대행사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도 총 심방대상자 500명중 출타자를 제외하고 404명의 노부모님을 찾아뵙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는 노인 대심방을 1월과 2월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각 지구별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주위도 무릅쓰고 심방길에 나설 때면 언제나 부드럽고 조용한 주님의 속삭임이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복인아! 지금 너의 발걸음은 충현의 많은 성도들을 대표한 효도의 발걸음이야, 알겠니?」

「네, 주님, 정말 그렇군요」

「저에게 효도의 기회를 주시다니요, 참 감사합니다」

노인 대심방은 효도하는 심방, 효도 대심방입니다.

우리를 반겨주시는 노부모님들의 모습을 가까이 뵈오면서 저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여미게 되고 머리가 숙여지면서 피상적이었던 눈과 사고의 베일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발견의 감격과 감회속에 긴장이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노부모님들의 주름진 얼굴의 무늬속엔 고귀한 희생이 숨겨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조용한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삼키고도 유유한 바다처럼 포용의 힘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흐린 눈빛 속에는 쌓이고 쌓인 경험의 인물과 달관된 투지력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낮은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팔을

희생·포용·전도자·봉사자의 능력을 갖춘

늘 효도의 꿈을

설계하자



정 복 인전도사

(2지구 심방담당)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담겨져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슴 속에는 자녀들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전도자의 뜨거움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고, 거치른 손길은 자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위대한 봉사자의 손길임을 보았기 때문이며, 흔들리는 발걸음은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는 용자의 행진임을 보았기 때문이고, 고요한 자태는 오랜 신앙의 체험적 이해와 경건의 능력이 서려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5월의 빛속에 만발한 흰 꽃송이처럼 소중한 선물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귀하신 노부모님들께 우리들은 매사에 의논드리고 슬기가 필요하며 더 많은 대화의 시간을 드

리는 이해가 필요하고 함께 찬송하며 기도드리고 은총이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봅니다.

아메리카의 극작가 페인(John Howard Payne)의 「즐거운 나의 집」(Home Sweet Home)의 시구처럼 우리 가정들은 노부모님들께 즐거운 나의 집이 되도록 마음을 모아 봅니다. 비록 꽃이 없고 새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편히 쉬는 안식처가 되도록 정성을 모아봅니다.

그리고 교회는 연초의 노인 대심방, 주일마다 모이는 노년부 주일학교, 그리고 5월의 경노잔치 이외에도 새로운 효도의 꿈을 설계해 나가는 은혜스러운 교회, 더욱 영광스럽게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소원합니다.

“너희는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화의 주위도 무릅쓰고 심방 길에 나설 때면 언제나 부드럽고 조용한 주님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복인아! 지금 너의 발걸음은 충현의 많은 성도들을 대표한 효도의 발걸음이야, 알겠니?」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 속에 사는 노인들

이 세 열 목사

(심방위원회위원·7지구 심방담당)

노인 심방은 새해에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찾아 뵙고 인사를 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대화를 나누는 매우 뜻있는 행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 심방을 하면서 새삼 느낀 것은 인생은 무상하다는 것, 그러나 신앙인에게는 축복이 있다는 것과 복있는 노인생활이란 기도의 노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몇자 글을 쓰고자 합니다.

1. 인생무상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 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시 90: 5, 6).

영웅호걸도 가고 미인(美人) 효부도 가고 어제의 주인이 오늘은 연로하여 뒤에 물러서고, 그의 자손들에게 대를 물려주며, 영원히 사는 인간의 세상은 아닌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세상에서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시 90: 9) 라고 하였으니 슬프고 괴로운 것이 인생인가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같이 짧은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사니 “우리의 연수가 70 이요, 건강하면 80 이라도 그 연수의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시 90: 10).

죄의 댓가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 무슨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짧은 인생을 죄악 속에 사니 한스럽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시 90: 14)

인생이란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 자기의 생애를 제수하면서 사시는 것이 복된 것인데 그러려면 주님 영접하는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은 주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 분명할 것이며 죄악을 멀리 떠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2. 신앙인의 축복

노인심방을 하면서 보니 교회에 나오지 못하며 예수믿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녀손 중에는 교회에 나오나 어버이들에게는 전도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어버이들과 예수 믿지 않는 어버이들에게는 차이점이 있음이 발견됩니다. 예수 믿는 분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날 네가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으나 사시나 믿는 분에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어버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 부르시는 날 어떻게 하나, 믿음 없으니 구원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죄값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

져져서 고난을 영원히 받겠으니 어떻게 하나, 어버이에게 호도하는 길은 복음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믿는 분에게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생사 문제가 해결됐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으니 참으로 복된 것이 아닌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전 15: 55-57)

믿는 자들은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뿐입니다.

3. 기도의 노인

심방다니는 중에 기도의 노인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자녀와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람된 노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사시는 것, 거룩한 생활이요, 즐거움이 함께 하는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가정은 대부분 자녀손이 복을 받아서 가정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또 자녀들에게도 대접을 받으시면서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는 신앙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없는 가정은 자녀손이 잘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은 자녀손에게 축복을 했는데 축복하는 어버이들이 귀한 것이요, 그 가정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 열심히 하는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되고 온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정이 됩니다.

또한 기도 속에 사는 신앙의 어버이를 가진 가정은 죄악과 탈선에

빠지지 않으며 항상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즐거운 인생길이에요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속에 사시는 것 복된 인생길인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 많이 하고 자녀손들이 잘 되는 것 보세요. 하나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기도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꼭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남은 여생은 기도로 사세요,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건강 장수하세요.

(노인들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많은 기도제목과 가지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기도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확인

성도의 일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이 승 근 목사

(정년부지도·6지구 심방담당)

신학교 재학시절 당회장 목사님께서 연초에 노인심방을 하실 때에 가끔 수행한 적이 있었다. 졸업후에는 지구별 담당 목사님들이 그 일을 계속하셨기 때문에 수행하는 일이 없어졌었다. 1980년도에 지구를 담당하면서부터 직접 노인들을 심방하게 되었다. 노인 대심방을 하면서 그분들의 영적상태를 몇가지로 구분해서 적합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그중에서 대부분의 신실한 성도이신 노인들을 심방하

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를 확인하게 된다.

“할아버님, 하나 여쭙어 보겠습니다. 할아버님께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할아버님을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했죠, 하나님의 은혜없이 제가 어떻게 살아 왔겠습니까?”

“특별히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죠?”

“그거야 성경말씀을 통해서 깨닫

고 생활속에서 늘 체험하고 있지요”

“특별히 기억에 남을만한 일은 없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이죠, 나는 3번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해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살아 남아 있죠.”

“이제 남은 여생은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겠소? 공부를 더 하겠소? 교회 출석이나 열심히 하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로나 봉사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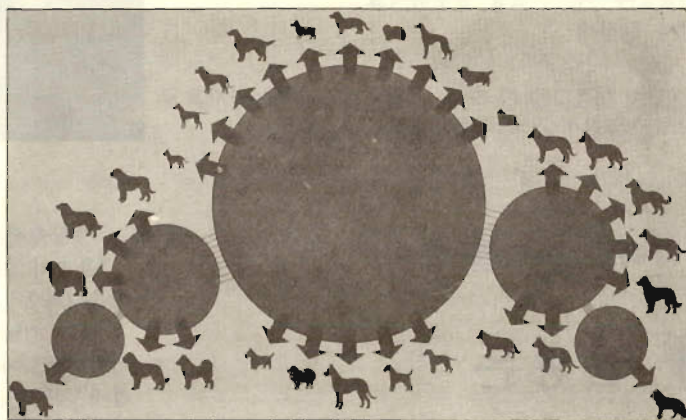
대부분의 할아버님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고백이다. 성도들의 일생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이 그분들의 고백으로 인해 재확인되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중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시 37:23-26)

창조과학자들의 도전받는

진화론

생물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가장 폭넓은 영향을 받아오던 '창조다윈의 진화론'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다윈이 「最適者生存」이란 진화론을 그의 유명한 「종의 기원」을 통해 발표한 것은, 1859년, 그후 그의 진화론은 생물학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사상·문화 자체에 대단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은 그가 「종의 기원」을 발표한 당시에는 물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큰 유전자 풀에서 다양한 개가 생기는 변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개」라는 유전적 한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히 거센 반발을 받고 있다. 또 이 문제를 법정에게까지 제출, 미국 일부 주에서는 교과서에 진화론과 함께 창조론을 게재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일은 '찰스 다윈'이 타계한지 일백주년이 되는 날, 진화론을 되새겨보면서 창조과학자들의 의견을 정리해 본다.

이 원고는 1982년 4월 24일자 크리스찬신문에서 전재한 것입니다.

도전받는 다아원 진화론

생물이 지닌 온갖 속성을 표현하는 「중」은 안정되고 시공을 초월하는 불변한 것으로 인정되어 왔다. 아리스토텔(Aristotle 384~322 B.C)은 「신이 창조한 생명은 어디까지나 물질을 초월한 어떤 힘이 있다. 그러므로 신이 창조한 「중의 모습」은 영원불변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이래 교회의 권위아래 중에 대한 논의가 금기인 것처럼 되어오다가 18세기 후반에 와서야 중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논쟁이 일기 시작한 것이다. 「뷰퐁」은 「중은 완전히 정리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해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후 「라마르크」를 거쳐 「다윈」에 이르러 비로소 과학적 방법—즉 관측, 의문, 추리 및 가정, 이론, 실험

법, 법칙이나 사실의 확립에 의한 진화론이 성립되었다. 그는 저서인 「종의 기원(1859)」에서 상태로서의 「중」을 인식하여 종의 형성이 외부 환경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전 생물이 변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그는 수평적 진화과정에 중점을 두고 『모든 생물은 동일 조상에서 출발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러 종으로 분화된 것이며 이것은 개체변이와 자연도태의 두가지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개체변이를 통하여 나타난 생물종 환경에 보다 적합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는 열성의 형질을 가지고 있는 개체에 비하여 일정한 환경조건에서의 생존능력이 강하다. 따라서 그 형질을 후대에 물려줄 확률이 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개체들의 형질은 도태된 화물이 커지게

되는데, 이렇게 점진적으로 생겨나는 조그만 특징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누적됨으로써 처음의 종과는 다른 새로운 종이 분화된다」고 하였다. 결국 개체에 있어서 경쟁의 결과로 능력이 있는 개체만 살아남게 되는, 이른바 「적자생존」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 방법을 통해 인류도 동물로부터 진화되어 왔음을 강조했다. 이것이 당연히 당시의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왔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후 「멘델」의 유전 법칙이 발견됨으로써 유전적 변이가 진화에 직접 관여하며 다윈이 이야기했던 획득형질은 유전 및 진화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함을 인식하게 되어 이를 근거로 신다윈 주위가 싹트게 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진화가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고 복합적 유전인

자의 작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종합적 진화론으로 확립되었다. 다윈의 진화론은 인류의 화석에 나타난 생물의 흔적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여 과거의 생물과 현존의 생물을 연결시켜주는 중간과정의 생물의 존재를 통하여 진화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인류진화의 경우는 침팬지, 고릴라, 원숭이에서부터 비롯되는데 그 중간과정이 현재의 인류와 원숭이와의 중간 형태를 취한 유인원이라고 한다. 1932년 인도에서 발견된 라마피테쿠스를 필두로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등으로 인류가 진화하여 현재의 인류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들간에 연결되지 않는 부분이 의외로 많고 따라서 다윈의 주장처럼 모든 생물과 인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진화했는가에 많은 의문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는 진화가 결코 점진적 과정만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의 불연속적인 비약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진화가설 즉 퍼물론이 나타나기도 했다. 거기에 다시 기독교인 과학자에 의해 다윈의 진화론들이 갖고 있는 많은 취약점들을 들어 진화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창조에 의해 인류와 모든 생물이 형성되어 왔음을 주장하는 이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어 백년동안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되어온 다윈의 진화론은 다 지금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성서에서의 창조론

창조론이 다시 대두되게 된 것은 진화론자들의 빈약한 증거제시에 기인하였다. 진화론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진화의 중간과정에서 생물의 화석을 찾아 볼 수가 없고, 원초적인 생명의 창조가 공학적인 무기물의 합성에 의한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우기 오늘날의 질서정연한 생명현상을 자연적 현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정교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분명히 절대자의 개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성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여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이



(네안데르탈인, 어깨가 굽어 있었기 때문에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이라고 주장되어 왔으나 더 많은 연구 결과 이 화석의 주인공이 비타민D의 부족으로 일어난 골주병 환자였음이 밝혀졌다.)

며 그에 의해 우주 만물의 기원이 나타났다고 하며 창조의 사실과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 물론 창조의 이야기는 성서를 제외하고서도 많이 있었다. 어느 종교에서든지 그것의 시작을 위해서 생명과 세계의 창조라는 것이 필요했다. 그 종교가 우주의 원리에 기초한 가장 중심적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질가니스츠 신화, 플라톤의 철학과 희랍신화의 창조설화, 중국의 창조설화등 많은 창조설화가 존재해 왔다. 이렇게 단순히 창조설화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의 창조는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조는 이런 이방의 창조설화와는 뚜렷하게 다른 근거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의 창조는 「크레아치오 엑스니hil로(Creatio Exnihilo)」 쉽게 말해서 무에서부터의 창조인 것이다. 인간의 경험에 의하면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무엇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경험을 통해 항상 있는 것에서 다른 것을 만들어 낸다는 사고에 익숙해 있다.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도대체 누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만들어 낸다는 것은 도저히 인식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방의 신들은 이 인식론을 토대로 하여 쉽게 인식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 졌던 것이요, 이러한 이유에서 성서의 말씀은 도저히 인간으로서의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었기에 인간이 만들어 낸 것 일 수가 없다. 성서적 창조론은 성서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의 창조원리에 의해 모든 인간이 창조되었으며 그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였으며 인간을 지은 것은 다른 생물의 창조와는 다른 것으로 적자생존의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부터 인간은 만물을 지배할 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따라서 인간은 창조주의 뜻에 따라서 만물을 지배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진화론에 대한 반박

사실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실험이 불가능하다. 진화론의 경우 대체로 가설에 대한 증명이 계속되어 왔고, 창조론의 경우에도 이미 완성된 것이기에 실험을 통해 어느 것이 확실히 옳은가에 대해서는 직접 증명할 수는 없다. 단지 어느 것이 더 많은 자료를 만족시키고 있으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반적

여린 마음

이 건 숙

(소설가)

친정 어머니는 교회(市橋)인데도 손자 손녀들과 잘 어울리신다.

오빠네는 아이가 셋이다. 셋이면 가운데가 항상 치이게 마련이다. 그래서 할머니를 제일 많이 찾는 애가 가운데, 희야인 것이다.

아들보다, 며느리보다, 딸이 말동무가 더 되고 더 재미있다는 말을 주위에서 많이 들어왔다. 우리 어머니도 예외는 아닌 모양인지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일이 생기면 번번이 내가 그 말동무가 돼야했다. 늘 하시는 이야기야 주변의 이야기고, 그러자니 늘 오빠네 이야기가 전부였다. 실것이를 하며 옷장을 정리하며 들려주는 어머니의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었다. 아직도 젊을이처럼 감수성도 예민하고, 일단 마음에 잡힌 사건을 그렇게 재미있게 묘사할 수 없었다. 타고 난 소설가인데 시기를 놓치신 분처럼 보였고 늦게나마 나도 40이 넘어 데뷔했으니 이 기회가 이미 어머니를 거쳐 내게 온 것처럼 종종 생각키었다.

어제는 둘째 손녀의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내 곁에 앉아 눈물까지 찼금거리셨다.

사연인즉, 아파트에서 망집으로 옮긴 첫 봄이라 병아리 세 마리를 학교 앞에서 사들고 온 아이가 바로 천더기 둘째 손녀였다. 첫째 딸은 첫째라 위해주고, 세째는 막내라 귀엽지만 둘째는 그 사이에서 납작이가 돼서 항상 징징거리는데 병아리를 사들고 왔으니 있는 잔소리는 다 챙겨 들었다. 어찌 그 작은 것들이 뼈악뼈악거리는지 금세 집안이 시끌시끌해져서이다.

이리저리 쫓기다 할 수 없이 할머니방에 이들 병아리를 가둘 수 밖에 없었다. 박카스 종이 상자에 정성스레 헝겊을 깔고 울어젖히는 병아리를 상자에 넣어 방구석에 놓으며 학교 다녀 올 때까지 신신당부를 하며 맡겨 두고 갔다.

그러나 문제는 친정 어머니도 권사일로 바빠 그 병아리를 지킬 수 없는데서 터졌다. 파출부가 방청소를 하다 너무 요란하게 우는 병아리들을 앞 마당에 쏟아냈다. 손 쓸 새도 없이 앞마

자료가 적은가에 따라 두 모델 중 어느 것이 좀더 사실로서 인식될 수 있는가에 결정된다. 진화모델은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자연법칙 및 변천과정에 대한 기원과 발생 및 모든 사물의 의미를 설명하고자 한다. 진화는 독자적인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 자체 안에서 고유의 법칙이 모든 것을 보다 높은 단계의 조직으로 된다. 결국 진화는 계속되는 자연적 기원에 근거하여 자연내의 경쟁관계를 통해 성립되는 것이다. 창조모델은 모든 창조물에 있어서 지금은 행해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창

조적인 행위가 존재했었다는 것이며 이것의 변화는 천지가 변함에 의해서만 일어날 뿐 개체의 변이과정을 통해서만 전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모델을 두고 생물발생적, 생물학적, 열역학적, 화학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① **생물의 발생에 있어**: 진화론적 입장은 무생물이 열에 의해 우연적으로 생명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창조론의 경우는 과학적 조사에 의해 생물체가 DNA의 복잡하고도 정교한 구조로 생명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

은 태초에 생명을 창조한 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② **열역학적 고찰에서**: 열역학 제1법칙인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진화론의 경우에는 무기물에서 생명체가 탄생한다고 하여 결국 무에서 유가 형성된다고 하고 있다. 또 창조론의 경우는 생명의 발생시 창조주 자신의 생의 에너지의 일부가 생명으로 전환된다고 본다. 제2법칙인 「에너지의 질적 쇠퇴현상」은 하나의 무기물에서 생명체인 세포로 될 확률이 10의 16만 8천 승분의 1이라고 보며 10의 50 승분의 1이하의 확률은 0으로 간주하는 것

당의 주인공인 바둑이가 장난기 어린 동작으로
넙글 넙글서 셋을 모두 죽여버렸다.

학교서 돌아온 병아리 주인인 둘째 손녀는 정
원에 버려진 병아리들을 쓰다듬으며 쉽게 쉽게
울었다. 울음끝이 하두 질겨 애 엄마인 며느리
가 고함쳤다.

「울 일도 많다. 사람이 죽었나, 니 에미가 죽
었나! 주책이야.」

부엌에서 설것이를 하며 외치는 며느리의 음
성은 가시 돌친 음성이었다.

「시골서나 기르는 것을 왜 사왔어?」

막내의 핀잔.

「닭고기도 먹는데 뭘 그래.」

언니의 이기죽거림.

둘째는 그럴수록 더 악을 쓰며 호느꼈다. 외
출했다 들어선 할머니는 병아리들을 물어주고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혔다.

아이는 젖은 눈을 꼭 감고 간절한 기도를 하
기 시작했다.

「하나님. 불쌍한 우리 병아리가 얼마나 아파
겠어요. 날개가 깎여질 때 병아리의 엄마도 아
빠도 곁에 없고, 나도, 할머니도 옆을 떠나 있었
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흑흑…… 지금쯤
그들이 천국에 가있지요? 그곳에선 이렇게 아
프게 하는 일이 없지요. 하나님, 우리 병아리를
아직 이름도 지어주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돌봐주세요. 흑흑……」

아이의 호느낌은 끝이 없었다. 일곱살 짜리

손녀의 기도를 들으며 함께 울어버린 할머니는
며느리와 아들이 고까워 삼을 수가 없었다. 그
래서 안방을 향해 고함을 쳤다.

「둘 같은 마음을 가진 너희들이 이 애만도 못
하니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니?」

방안에서는 인기척도 없더라.

대화를 찾아 오신 친정어머니의 눈은 병아리
새 마리의 죽음을 놓고 흠뻑 젖어있었다.

「어머닌 지금 돌아가셔도 바로 천국 직행 감이
예요」

「뭐?」

의아해서 날 쳐다보는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
을 보며 그 어린 마음을 부러워했다.

사랑이란 마음 발이 이렇게 여릴 때 배풀어질
것이다. 배고픈 사람을 볼 때, 아파하는 사람을
볼 때, 또 괴로와하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저
러와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 사랑보다
알서야 하리라. 이런 여린 마음을 갖는 것도 하
나님이 은혜로 주셔야지 어찌 내가 내 마음을 여
리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둘같이 단단한 마음에서 어찌 눈물이 흐르리
요.

얼음 같이 찬 마음에서 어찌 사랑이 흐르리요.
어린 아이처럼 여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
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오! 주여

내 일생, 이 여린 마음을 갖게 하소서. 눈물
많은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을 볼 때 진화론의 경우 열역학법
칙에는 어긋난다고 본다.

③ **생물학적 면에서**: 진화론은 생
물중의 분류, 비교해부적 증거, 발
생학적 증거, 흔적기관등을 진화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고, 창조론은 유
전인자만을 통해 유전됨으로써 전
화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가장 커다란 쟁점으로는

④ **역사적, 화석학적 고찰에서**:
진화론은 대충 2백만년전으로 추정
되는 고생대의 삼엽충, 무척추 동
물에서부터 어류, 양서류, 파충류
를 거쳐 70만내지 2백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중생대에는 공룡과 조류

가 출현하였다. 신생대에 와서 비
로소 포유류가 출현하여 약 3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제 4기 홍적세에
이르러서야 초기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하며 이를 화석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창조론은 사람이 초기 원생동물에
서부터 시작하여 원숭이를 거쳐 점
차적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은 대표
형태의 화석만 존재할 뿐 중간형태의
화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진화의
증거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화
석은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고 인간
의 창조도 여기에 따른다고 한다.
결국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위

와 같은 비교에 의해 진화론적 입
장에 서기보다는 창조론적 입장에
서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진화론을 부정하기
위한 목적이나 과학적 사실을 인정
하지 않으려는 목적에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 특히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
조된 인간의 생명에 대해 깊은 관
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
적과 의미를 깊이 깨닫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

최소한도의 수준

이 형 수

최근에 우리는 신문 지상을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을 접하면서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을 느끼고 있다. 이런 놀라움의 이유중의 하나는 너무나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사회와 계층에 맞는 삶을 살게끔 보이지 않게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과 신뢰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다. 나라의 고관들은 고관들로, 경찰관은 경찰관으로, 교사는 교사들로, 목사는 성직자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교회는 교회로, 어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살

아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그 사회 그 계층에서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며 살아 가는 것이고 그럴때에야 사회의 최소한도의 질서는 유지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최선의 삶을 살 때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느끼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최선은 교사하고 「최소한도」의 수준만이라도 피차가 지키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요즘의 심정일 것이다.

사회의 질서가 깨지고 우리를 불쾌하게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최소한도」의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때 나오는 것 같다. 나라가 나라로서 최소한도 수준을 유지 못할 때, 학교가 학교로서, 가정이 가정으로서, 자녀가 자녀로서 최소한도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과 사역들을 감당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처럼 우리를 경악하게 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교회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최소한도의 수준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물론 우리가 이 최소한도의 수준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창피와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법과 비리(非理) 등에 빠져드는 일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은 매우 높은 것이라는 것이다.

＝ 물맷돌 ＝

초원의 집

얼마전 MBC T.V에서 방영하던 「초원의 집」을 보았다. 참 좋은 영화였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퍼 우는 친구를 보면서 「초원의 집」의 한 장면을 생각해 보았다.

(찰스 잉겔스씨의 어머니-아이들에게 할머니-이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듣고 다들 슬퍼했다. 특히 잉겔스씨는, 이 분위기에 얼떨떨해진 막내딸이 어머니에게 묻는다).

케리 : 엄마! 할머니가 죽은 후에 어딜 가나?

엄마 : 죽은 후에 천당엘 가지.

케리 : 천당가면 좋을텐데 왜 엄마, 아빠가 울지?

엄마 : ... (한참 있다가) 천당가시는 것은 좋지만 서로 헤어지는게 슬퍼서 그러는 거야.

케리 : 응, 알았어. 엄마, 잘자.

엄마의 대답은 참으로 지혜로웠고 성경적이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전 4 : 13, 14)

* 찬송가감상 *

저 북방 얼음산과

From Greenland's Icy Mountains

<새552장>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못 백성 사는데
큰 죄악 범한 민족 참 구원 얻으려
주 빛을 받는 우리 곧 오라 부르네

1819년 5월 30일, 영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렉스햄(Wrexham)교구 목사인 위프리 박사는 이날을 선교 주일로 정하고 전날밤인 토요일 저녁에 모여 선교 전략을 세우고 있었다.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 후에 부를 적당한 찬송이 없어 고심하고 있었다. 그때 마침 그 회의에 참석했던 시인이며 사위였던 헤버(Reginald Heber, 1783-1826) 목사에게 적당한 찬송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그는 회의 도중이었지만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깊은 생각에 잠겨 있던 목사님은 곧 펜을 들어 써 내려갔다. 잠시 후 그는 자신이

쓴 찬송시를 읽게 되었고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너무나 훌륭한 찬송시에 놀랐다. 바로 이 찬송이 선교 주일을 더욱 더 빛나고 은혜가 넘치게 했던 찬송이다. 그 당시에는 “거지의 오페라”에 나오는 곡에 맞춰 불렀는데 그후 1823년 율가니스트였던 미국인 메이슨(Lowell Mason)이 곡을 붙였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잊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세

5월은 총동원 전도의 달이다.
민족 복음화를 가슴에 안고 또
세계선교의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 거룩한 주님의 사역을 게을리할 수 있으랴!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온 몸과 재산 드려 모든 백성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 열매는 투자에 비례한다.

힘있는 이 찬송은 전도에 대한 사명감을 불어 넣어준다. 이 찬송이 금년 총동원 전도에 기폭제가 되어 개인과 가정과 구역과 부서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 책소개 ◇

존 스토트지음 · 최낙재 옮김

성경연구입문

한국성서 유니온 · 245 페이지 · 1500원

우리는 우리말 한글 성경이 무척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쉬운 말로 쓰여진 성경의 필요를 따라 새롭게 번역된 성경이 한 두권 나왔다. 그러나 문자 자체가 아니고 그 내용과 의미에 있어서 성경은 여전히 어려운 책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교회에서 성경읽기를 지도하고 강조함에 따라 성경을 읽지만, 가능하다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읽는 방법이 있다면 하고 생각이 되고, 또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성경입문서가 많이 나와 있는 형편이다.

그런 책들 중에서도 존 스토트 목사의 「성경연구입문」은 매우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이 된다. 이 책의 서문에서 존 스토트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충만하신 모습대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에게 보내신 때의 상황을 이해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실 때, 특별한 지리적, 역사적, 신학적 상황하

에서 주셨다. 쉽게 말한다면 특별한 장소인 팔레스타인에, 특별한 시간인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유대 나라 역사의 정점에, 그리고 특별한 진리체계, 곧 성경에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항구적으로 기록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성경의 지리, 역사, 신학, 권위 및 해석문제를 취급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성경이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짧은 내용이지만 품위를 잃지 않고 흥미를 끌 수 있게 쓴 편집과 내용이 한결 매력을 준다.

이 형 수 집사 (월간중현편집부장)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을 살펴보면 먼저 이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와 어떤 규모로 설계 하셨는지 성경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되나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창 2:21-25)

가정의 근본은 말씀대로 애정입니다. ‘뼈중의 뼈, 살중의 살’이라는 이 뜨거운 애정 고백은 가정을 이룸에서부터 계속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요즈음 많은 젊은이들이 환경과 배경,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기준으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러다 때를 놓치게 되면 처음 세워 놓은 기준과는 전혀 상반되는 경우에도 해치워 버리기도 하거든요. 성경은 가정을 이루는 중심이 애정이어야 함을 제일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위에서 애정없는 가정의 슬픔을 많이 봅니다. 형편은 유족하나 부부가 온전한 애정을 갖지 못한 가정, 또한 얼마나 위장을 잘 하는지 부부가 다섯달 동안 말 한마디 안하면서 사이 좋은 척 합니다. 무서운 비극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정의 원리를 나누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가정에 꼭 적

말씀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가정



홍 정 길 목사

(남서울교회 담임)

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자는 시집 보내는데 남자는 장가를 안보내거든요. 영원히 자기 아들이예요. 그러나 말씀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사랑스러

워도 아이가 태어나 한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뱃출에서 끊어버려야 하는 것처럼 한 가정이 한 단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키워주었던 부모의 영향력에서 끊어주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 판단에서도 끊어주어야 하고 사회적인 책임에서도 끊어주어야 합니다. 한국 가정의 계속되는 고부간의 갈등은 이 끊어줌이 심리적으로 없기 때문에 상존하는 것입니다.

② 아내와 연합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는 무작정 갈 바를 모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연합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연합이란 말의 의미를 깊이 추적해 보면 사랑한다는 강한 뜻이 들어 있습니다.

1. 희생

연합하는 데에 필요한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왜 서로 하나되지 못합니까? 그것은 자기가 희생하려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행동 방법만을 주장하다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게 되고 인격에 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2. 책임

이 연합은 우리에게 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약점과 실수를 서로 보완해 주고 막아주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책임감을 가진 사랑을 쏟아부어 주는 것 같이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끊임없이 행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강할 수 있도록, 부족하기 때문에 더 채워주고 싶은 욕망-이것이 책임있는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질투 하시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

은 가장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또한 책임지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되면 매를 들어서까지도 고쳐지기를 기뻐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연합한 부부도 이런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3. 불가분리(不可分離)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무نون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워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마 19:3~6)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결혼의 원리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워 주신 이것은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는 부부의 애정을 나누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부모를 모시는 일, 자녀 문제 등,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애정입니다. 성경은 자식보다 부모보다 부부가 서로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의 도리로써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으로 부부의 윤리를 말씀하신 후에 곧 이어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엡 5:22~6:4).

4. 자녀교육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설계한 그 원형을 따라서 주님과 교회

결혼생활에는 부부의 애정을 나누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남편의 직장, 부모를 모시는 일, 자녀 문제 등,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애정입니다. 성경은 자식보다 부모보다 부부가 서로를 제일 먼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를 위한 높은 목표를 향해 날마다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는 아름다운 가정이 교회와 사회의 단위를 이룰 때에 사회는 건전하고 아름다워지며 교회는 날로 강해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 위에 또 기업으로 주신 자녀문제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부모들, 특히 남편들은 사회생활에 너무 바빠 가정을 무엇보다 자녀들을 돌볼 틈이 없습니다. 한국의 신령한 목사님, 장로님치고 자녀교육 문제없는 가정이 없다고 그러더군요. 언젠가 미국의 빌 브라이트 CCC 총재를 만났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지요. 주의 일을 조금 충성되이 하려니 가정을 잘 돌볼 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 바쁜 일정을 어떻게 계획하여 가정을 돌보느냐고요. 그런데 그분 말이 미국도 같대요. 또 자기 아들들은 그 지역에서 망나니로 유명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 엘리 제사장의 못된 두 아들도 결국 엘리 제사장의 무관심 때문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도 일년에 두 날은 자녀들과 함께 놀기로 결정을 하였답니다. 그런데 처음 그 결정을 이루려고 한 날 외국의 국가 원수되는 사람이 자기 나라 복음화를 위하여 만나 의논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빌 브라이트는 난감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잠시 기도한 후에 자기가 너무 중요한 선약 때문에 뵙지 못하겠다고, 차후에 자기가 꼭 그 나라를 방문해서 만나 뵙겠다고 거절할 한 후 자기 아들과 약속한 캄 스프링스라는 곳에 가서

하루 종일 눈싸움을 하고 놀았다고 하더군요. 한국 부모들 아마 어디 주의 일을 놔두고 아들놈과 눈싸움 하느냐고 반문할 분 많은 줄로 압니다. 그 일 후에 빌 브라이트의 아들들은 자기를 아버지가 외국의 원수보다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린 아이가 아무리 신령한 가정에 태어나도 우유를 먹어야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한 인격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에 자식에게는 아버지로, 아내에게는 남편으로, 나의 아버지에게는 자식으로, 직장에서는 직원으로, 대한민국에게는 국민으로 불렸습니다. 이 어느 것 하나라도 치우치거나 소홀하면 인격은 절대로 균형있게 성장되고 유지되지 못합니다.

자녀 교육 문제가 말씀에 나타난 곳을 살펴봅시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1-4).

1.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인지 구체적으로 몇가지 나누어 봅시다.

첫째 과잉보호입니다.

언젠가 중등부를 데리고 수양회를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

후 돌아오는 날 한 학생이 마호병의 물과 수밀도 복숭아 썩은 것을 내버려요. 왜 친구들과 나누어 먹지 않고 버리느냐고 물으니 엄마가 혼자만 먹으라고 그랬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키운 자식은 자라서 수밀도 썩혀 버려도 부모 방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수영장에 보내면서 수영 배우기 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른다면 이렇게 유치한 교육이 어디 있겠습니까?

둘째, 편애입니다.

이 편애로 인한 가정의 비극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두 형제에게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각자 자기 취향에 맞는 자녀를 편애할 때 화합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서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녀를 이웃집 아이와 비교하지 마세요. 형과 동생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비교는 사탄의 가장 훌륭한 도구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세째, 소홀히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일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소홀해지게 됩니다. 구약시대 족장들은 늘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다녔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신앙이 그대로 유전된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참 축복받은 말입니다. 우리는 순종의 믿음을 자기뿐 아니라 자기 아들 이삭에게까지도 똑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인격으로 키운 아브라함의 신앙을 높이 삽니다. 반면에 사사들과 제사장들, 이들이 주의 일에 너무 바쁜 나머지 자녀를 돌보는 문제에 소홀하여 그 아들들이 타락한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2. 주의 교훈과 교양으로 양육

이것은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알

고 교육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 그 방식을 아무리 가르쳐 봐야 별 의의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한대로 배웁니다. 먼저 부모가 주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착념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신앙인들도 이 성경공부는 생명입니다. 보통 강의만 들으려 하고 공부하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삶과 성경 말씀과의 부딪힘이 없이는 그 생활에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까요.

첫째, 이해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아이들에게 맞는 용어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학생들을 성경공부 시킬 때 보면 처음 믿기 시작한 학생들 로마서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영어 성경을 읽는 것이 더 편리하다고 해요.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칠 때 쉽게 전달해야겠다는 충동을 많이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생기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4장 20 절을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란 말이 있는데 이 말로만 보면 의심을 했다는 말인지 안 했다는 말인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교회 나온지 1년 정도 되는 분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役畵)라 하기에 성령의 역사(歷史, History)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성령의 일(Work)이라고 얘기하더군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행동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늘 보살펴주며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 람은 자녀들에게 지혜 훈련을 강하게 시킵니다. 한국 부모의 열심은 강에 나가 잉어를 잡아 밥상에 놓아주지만 유대인 부모는 잉어 잡는 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살 때에 지혜는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유혹은 우리의 순수함을 많은 손해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째,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것을 심는 것과 거두는 것에 적용시켜 책임에 대해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르쳐주어 책임지는 인격, 이 인격이 그의 삶에 습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째, 참된 지혜로 창조적인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습관적인 것을 넘어서서 창조적인 삶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 사랑하는 부부, 그리고 주의 말씀과 교양에 잘 자라는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생활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

(이 원고는 감변교회에서 있었던 강의록 정리한 것입니다 - 편집자)



새신자에서 세례교인까지

학습 · 세례과정으로 각 6개월 교육

주일학교에 어린이새신자부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장년 새신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73년 신입부를 새신자부로 변경하면서 새신자부 안에 장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장년 새신자에 대한 교육을 시작하였다.

새신자부 안의 장년반으로

그러던 중 장년 새신자에 대한 중요성 및 그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1975년 새신자부 안에 어린이·장년을 별도로 구분하여 교사조직을 하면서 그 당시 새신자부 지도교역자이던 정기성 목사가 장년 새신자를 위한 교재를 집필·발간하게 되었다. 이 교재는 교과과정이 6개월(총 26 시간)로 편성된 것으로 성도의 믿음과 생활에 관한 것으로 6 권으로 나누어 1 개월에 1 권을 배우게 되어 있다.

1977 년도부터 「장년새신자부」와 「어린이새신자부」로 나누어 운영키로 했으나 단일 지도교역자와 부장 지도하에 두었다. 1980년에 장년새신자부를 독립하여 운영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장새부에는 학습반과 세례반을 두고, 학습반을 마치면 학습을 주며 세례반에서 6개월을 교육시켜 세례를 베푸는 명실공히 새신자에서 시작하여 1년후 세례교인까지를 교육시키는 장년새신자부로 발전하게 되었다.

1981년—2개의 장새부로

그러나 점점 증가하는 인원과 학습반과 세례반의 수준 등을 감안하

여 1981년부터는 장년새신자1부(학습과정)와 장년새신자2부(세례과정)로 분리, 발전적인 운영을 하면서 장년새신자 교육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

장년새신자2부도 6개월 과정으로 기독교의 기본교리를 중심으로 교육하고, 6개월 수료후에는 세례문답을 거쳐 매월 마지막주에 세례식을 갖고 있다.

이처럼 새신자부의 소정과정을 마치면 학습과 세례를 베풀게 됨으로 보다 잘 교육받은 사람을 학습·세례교인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가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문답자수를 분산하여 실시하게 되어

6개월 수료후 학습·세례

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학습인준 및 수세가 피교육자에게 교육수료와 같은 의미를 주어 새신자교육의 질서유지와 숫자적 발전에 큰 이점을 가져오게 되었고, 또한 체계적인 학습으로 실제적인 생활의 변화 등을 가져올 수가 있어 이미 세례받은 세례교인도 장년새신자부를 찾는 경우를 보게도 되었다.

매주일 12시부터 1시30분까지 각 각 장년새신자부실(장새 1부: 학습과정)·청년부실(장새 2부: 세례과정)에서 집회를 갖는데 1부는 교재를 중심한 지도교육자의 강의, 2부는 분반하여 교사를 중심으로 생활문제를 문답형식으로 나누고 있다. 또한 성경찾기, 찬송가부르기, 신앙간증 등의 시간들을 통해 서로 교제하며 교회생활에 익숙해지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년새신자 1부는 현재 지도에 구명진 전도사, 부지도에 정금숙 전도사, 부장에 송기홍 집사 부감에 이육 집사, 이명자 집사 외에 남녀 20여명의 교사가 수고하고 있으며, 장년새신자 2부는 지도에 이성근 목사, 부지도에 장영자 전도사, 부장에 박인세 집사, 부감에 김환기 집사, 윤재춘 권사가 수고하고 계신다.

• 장년새신자 1 부 •



(지도 / 구명진전도사) <부 장 / 송기홍집사> (지도 / 이성근 목사) <부장 / 박인세집사>



칼빈주의 사회관

김 하 진 목사

(성가부 지도)

칼빈주의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란 놀라운 것이었다. 칼빈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세운 나라이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높이 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러한 나라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놀라우리만큼 발전한 모습을 우리는 서구 역사에서 찾아 본다.

칼빈주의를 따르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 결혼의 신성함, 법과 질서의 의무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하고 사유 재산을 인정하며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대한 보상이 주어졌으며 주일을 성수했고 그리고 개인이나 사회가 높은 공중 도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해 왔던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인 여러면 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기로 하자.

1.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사회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을 인간의 창조주로 믿는 동시에 인간의 생명을 존속시키며 보호하시는 분으로 믿는다. 이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다만 인간은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순종할 뿐이라고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은 유지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가치있는 존재이므로 인간의 생명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인간이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것을 유지하며 보호하신다.

2. 칼빈주의와 법 질서

어떤 사람들은 칼빈주의자들을 도덕 폐기론자라고 말하고 있으나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도덕 폐기론자(신앙 지상주의)가 아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시편 기자와 같이 주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규와 율례로부터 유래된 정부의 법도 역시 존중한다.

또한 칼빈주의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한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의 몸처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랑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인간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세워진 국가나 사회가 건전한 국가나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어떤 사회든지 하나님의 명에서 벗어나면 그 사회나 국가는 타락하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사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칼빈주의자가 하나님보다 다른 절대적인 통치자에게 순종할 수 없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는 국가 권력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하나님의 법 이상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칼빈주의와 가족관계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성경은 말하면서 네가지 결혼의 목적을 보여주고 있다.

1) 부부가 서로 협력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이다(창 2:18).

2)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이다(창 1:28:9:1).

3)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므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이다(신 6:5-9).

4) 가정과 사회의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고전 7장).

칼빈주의자들은 언제나 결혼의 순결을 가르치고 옹호하기를 힘써왔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 24 장 참조). 그러므로 칼빈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배되는 국가의 여성들은 참된 만족과 보람을 가지고 생활하게 된다. 칼빈주의 사상에 의하여 지배되었던 16, 17세기 구라파, 독일을 비롯하여 스위스, 하란, 영국, 미국 등의 가족사를 연구해보면 다른 어느 시대 어느 사회보다도 튼튼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실을 찾아보게 된다.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직분인줄 알아 가정에 충실했고,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아내를 사랑했고, 연약한 부분을 붙들여 주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귀하게 생각했다. 이같이 칼빈주의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영광된 직분을 받아 순종하며 진정한 행복과 참된 평화의 의미를 알도록 부인들을 지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4. 칼빈주의와 노동

하나님은 그의 뜻을 행하므로 언제나 선한 노동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노동을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마음을 갖도록 하였는데 그것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히 13:2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동이란 바로 인간이 그의 삶을 위하여 하는 일이며 그의 가족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살후 3:10-12). 인간은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고 발견하기 위하여 땅을 정복하고 노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은 노동의 가치와 신성을 말했고(요 5:17, 4:34) 사도들도 노동은 죄가 아님을 계속 말하고 있다. 노동에 대한 신약의 윤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조용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다.(살후 3:12) 이와같이 생각할 때 게으름은 죄악으로 간주되며 노동은 신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장려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노동하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두둔하는 것은 마치 거짓된 사랑과 자비를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람은 이단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주장하고 있다(딤후 5:8; 13-16).

오늘날 기독교 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위대한 업적이나, 일생을 통해서 기억될만한 특별한 노동의 업적이나 할만한 일은 하나님의 직접적 간섭 아래에서 사는 수많은 칼빈주의자들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칼빈주의자는 결코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든지 그 일이 순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일은 무가치하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참된 일은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엡 4:7)하는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노동에 대하여 마키아벨리적 이론(Machiavelian Theory)과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법정에 설 수 없는 이론이다(Niccolo Machiavelli는 이태리 Florence의 외교가이며 정치가로 권모술수의 정책을 시도한 사

람, 1469-1527) 참된 노동이란 인간을 간섭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적응하여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참된 삶의 보람과 재미를 갖고 사는 것이다.

5. 기독교인의 물질관

성경은 물질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돈을 사랑하는 것을 정죄한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산물을 인간을 위해서 주셨다. 그것은 노동을 통하여 잠시 동안 인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완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하도록 주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물질이고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성도는 물질을 바로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의 양을 문제 삼지 않고 물질의 취득 방법이라든지,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물질을 대하는 인간의 마음의 자세가 문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도 바울은 딤후 6:17, 18에서 "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다(딤후 6:6-10; 약 1:10 참조).

그러면 성도의 바른 물질관은 무엇일까?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물질의 취득방법

성경은 여러곳에서 잘못된 물질 취득에 대하여 경고한다(출 20:15; 렘 22:13; 약 2:6; 5:4 등). 특별히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는 약자를 압박함으로 부를 증대시키는 것을 금하고 또 책망하고 있다. 물질이란 이웃을 위하여 선한 목적에 사

용될 위탁물이지만 이웃을 해칠 목적으로 맡겨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 물질의 사용방법

물질이란 언제나 세력을 얻는 일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물질은 인간의 방종과 과장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세상 물질을 보통 이상으로 가진 성도들에게 주어진 특수한 임무이다. 성도는 세상 물질을 많이 소유하되 자신보다 불행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누어주고 사치를 위해서나 자녀 교육을 위하여 지나친 낭비는 말아야 하며 탐심에서 오는 물질 남용은 하지 않아야 된다.

3) 물질에 대한 마음의 태도

물질에 대한 욕심은 누구에게나 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어떤 물질적 혜택을 주려고 일하거나 장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집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한다(딤후 5:8). 그러나 우리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것이지, 타인의 것에 욕심을 가진 다든지, 자신의 특수한 기술의 부족을 속이는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독교 기업인은 이윤을 극대화 해서는 안되며 항상 고객이나 종업원에게 최대 가치를 주는 경제 행위가 가장 가치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김창인 목사의

주기도문 강해 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은 주기도문 내용중 네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대하여 생각해 봅시다.

④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한달치를 미리 먹어두는 사람이 없고 아무리 폐가 튼튼한 사람이라도 열흘치 숨을 미리 쉬어 공기를 마셔두는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그러하듯 영적 은혜도 그렇습니다. 매일 계속 해서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늘날”이라는 말에 주의 해 봅시다. 신앙생활은 언제나 오늘이, 현재가 아름다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는 신앙도 좋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젊어서는 헌신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과거와 같이 좋은 상태이거나 더 자란 상태가 아니라면 과거에 좋은 것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과거만을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으로 인하여 오늘 밤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바울 선생은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풋대를 향하여 지금 달려 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때는 이렇게 중요한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우리의 생활 비 전부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집과 자녀들 교육비까지 육신이 사는 동안에 필요한 생활비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는 기도이며 예배당을 짓는 것, 세계를 향해 전도하는 것까지 모두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 죽기 전에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는데 그 첫째가 허탄한 것을 따라 거짓말하는 일이 없도록, 진실한 것을 따라 정직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허탄한 거짓말이라는 말은 뿌리없이 난 말, 근거없는 말을 가리킵니다. 짐작하고 말하면 늘 실수하게 되니 조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은혜를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기도는 적당하게 달라는 기도입니다.

또한 잠언 기자는 너무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되게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은 너무 큰 부자가 되면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없어지며 또 물질의 중요성을 잊어버려 그것을 요긴하게 사용할 줄 모르

게 됩니다.

나는 밥을 먹을 때 한 알이라도 상에 떨어뜨린 것은 꼭 주워먹습니다. 그 떨어진 한 알의 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농부가 힘들여 땅을 일구워 그 한 알의 씨를 심게 되면 이른 봄의 추위와 긴 여름의 가뭄과 장마, 질병 등 갖은 고생을 겪으며 여뒀습니다. 그것을 농부는 거두워 타작하고 정미소에서 껍질을 벗기고 여러 손을 거쳐 솥에 넣어 익히기까지 하여 내게 왔는데 입에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버려지는 것을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사람이 한 곳을 목적하여 향하다 그 문턱 앞에서 넘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때 안타깝듯이.

로마서 8장에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만물이 탄식한다 하였을 것입니다. 사람이 올바르게 만물을 이용하지 않을 때 그 만물은 통곡합니다. 그 통곡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그 탄식하는 얼굴과 우는 얼굴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사람이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게 되어 하나님과 만물에게 탄식감이 됩니다. 또한 너무 가난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잘 사는 사람까지도 원망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도적하는 사람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도는 선한 일 할 수 있는 것을 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내 욕심만 채우며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가 생각해 봅시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써 번 돈이며 그것으로 마
련한 것이니 다 내 것이라고 생각
하면 안됩니다. 그 이전에 이 말
의 뜻은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것
으로 정당하게 살아가는 뜻입니다.
정당하게 노력하여 얻은 음식이 아
니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비굴하고
남의 것 빼앗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
에 도적이 됩니다. 내가 정당하게
산 다음에 더욱 선한 일을 하기 위
하여 하나님께 계속 구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월급받는 공무원이 대
한민국의 백성을 위하여 충성하며
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김
일성 앞잡이가 되어 일하면 반역자
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땅 위
에서 공기, 곡식, 과일과 채소를 다
취하여 먹고 입고 살면서 하나님 앞
에 범죄하면 반역자를 범하는 것입
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시기를 겸손
히 간구하고 원하며 기도할 때에는
그것을 바로 쓸 것을 계획하여 주
신 다음에는 바로 쓰면서 계속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되어야 하겠
습니다. 또한 과거의 신앙을 교만
해 하지도 낙심하지도 말고 현재를
더욱 살피 아름답게 가꾸어 늘 "오
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
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
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으로 축복합니다.



= 오월의 시 =

기 도

김 은 숙
(재일성가대)

바람의 향방대로 끌리는 풀잎처럼
모두가 당신 앞에 엎드리웁니다.

새 아침의 햇살도, 온 세계의 어둠도,
그리고 세속의 어느 기세나
나를 에워싸 맴돌던 하나 하나가
지금은 순종을 따를 뿐이웁니다.
거기 나의 최후는
당신의 뜻 안에 빛 무리로 여울지웁니다.

주여
저에게도 당신의 손길을 퍼주소서
그 손길 안에서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이고 새겨야겠사웁니다.

당신의 음성이 들리웁니다
제 눈 빛이 어두워지다가
다시금 맞춰지웁니다.

이제 모두는 하나씩 차례로 떠나웁니다
멀리 떠나가는 자리
저희의 끝남과
주님의 비릇됨이웁니다.

이 모두가 당신께 돌아가는 것
주여, 당신과 하나로 이루어지는 것이웁니다.
—아멘.

시모님 사랑과 신앙유산



박 월 희 집사

내가 출가한 시택은 예산이라는 곳의 한 마을이다. 마을 뒤편은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 있어서 한결 아늑함을 느끼게 하고 마을 앞에는 방죽(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는 곳)이 재법 호수처럼 그런대로 마을의 그림자를 담고 있다. 동구밖은 넓게 펼쳐진 예당(禮唐)들이 멀리 지평선을 긋고 들 한복판으로 무한천(無限川)의 물줄기가 구비 구비 돌면서 꿈틀거린다.

봄이 오면 논가리 농부들의 소모는 소리로 하루 해가 저물어가고 여름이면 초록빛 들판 위에 백로들

이 한가롭게 줄고 있다. 가을이면 황금 이삭이 넘실넘실 파도치고 들길 따라 거닐면서 풍요함을 맛볼 수 있다. 가끔 글 읽는 소리가 마을의 적막을 깨뜨리고 서당 훈장이 목청을 가다듬고 점잖게 서동들을 부르는 소리가 매아리진다. 동네 공동 우물가에는 식때마다 부녀자들이 물동이를 이고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말 꽃을 피우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서로 아쉬운 듯 돌아간다.

이렇게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도 특이한 관습들이 문명을 외면한 채 내려오고 있다. 종가를 중심한

대, 소가들이 군집하여 있으므로 완고하고 타성과의 상반관계가 심하며 전통적 유교사상에 젖어 행동의 부자유를 느끼게 하였다.

따라서 예로부터 효자 효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고장이기도 하다. 우리 시모님께서도 효부상을 두 번이나 타신 분이시니 시택의 관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신앙의 가정으로 행세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으나 유일하게 시택 한집만이 시모님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었으니 대, 소가와 마을 사람들의 저탄의 대상이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시모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철두철미한 신앙 생활로 극복하셨다. 어머니의 엄격한 신앙생활은 한치의 양보도 없었다. 나는 결혼한 첫날부터 가정 예배에 참석하게 되고 첫주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그 당시 남편(윤용규 장로)은 교직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되어 군인의 몸이라 결혼 이틀만에 부대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래서 시모님께서는 신앙생활에 나를 동반하게 되고 고부간에 보기도문 신앙멤버가 되었다. 특별히 취침전 기도시간에는 내 방을 찾아 오셔서 나의 두 손을 꼭 붙드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던 그 단좌하신 모습은 지금도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준다.

주일날에는 어머니와 꼭 같이 하얀 모시치마에 모시적삼을 받쳐 입고 대문을 나서면 때로는 다른 집 며느리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다. 초종소리에 발걸음을 재촉하고 아침 이슬을 털면서 한 고개를 넘는다. 이웃 마을을 지나서 또 한 번 재를 넘으면 교회의 종탑이 보인다. 이 교회가 시모님과 다녔던 오촌(吾村)교회이다. 예배시간에도 어머니는 당시 옆에다 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나의 옷깃을 매만져 주시던

그 손길... 지금 생각하여도 파사로
운 사랑임을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이런 일로 인하여 집안 대, 소가로
부터 “새 며느리 교회 데리고 다니
면서 길 잘못 들인다”고 비난의 화
살도 많이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면
서 웃어주시던 어머니는 평범한 신
앙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사신 것 같
다.

그리고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
시는 분으로 한 번은 이런 일이 일
어났다. 어느 날 저녁, 한 40대의
여인이 손님으로 찾아와서 유숙하
게 되었다. 알고 보니 시할머니의
면 조카되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
런데 밤중에 손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온 집안이 발각 뒤집혔다.
아무리 찾아봐도 알 길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십리쯤 떨어져 사시
는 당숙모가 찾아와서 그 사람 어
제밤 우리 집에서 자고 오늘 새벽
그대로 떠났다는 것이다. 연유인즉
그분은 무녀인데 어제밤 시모님께
서 기도하시는 동안 성령님께서 역
사하시니 이분이 벌벌 떨면서 집을
뛰쳐나가 다른 집에서 자고 새벽갈
이 도망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하시던
그 자태를 생각할 때면 내 무딘 심
령을 두드려주시는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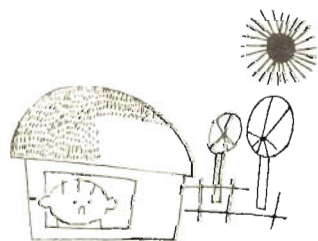
특별히 어머니의 열심있는 전도
로 아홉 가정을 주님 앞으로 인도
하신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다. 여
름밤엔 안 마당에 밀대방석 깔아 놓
고 겨울밤엔 장죽문 활짝 터 놓고
넓은 방에 마을 부인들을 모이게 하
고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으며
기도시간을 가졌다. 이럴 때면 언
제나 어머니는 찬송에 서투른 나에
게 찬송을 인도하게 하신다. 나에
게는 큰 고역이 아닐 수 없었으나
그것이 어머니께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려는 사랑임을 깨달을 수
가 있었다.

나는 작년 여름 지나는 길에 이



마을을 잠시 들른 일이 있다. 이제
는 시모님도, 시댁도 없는 마음의
고향일 뿐이다. 그런데 그때의 교
인들이 너무도 반갑게 맞아 주었다.
그들은 옛날과 같이 나를 “찬송 새
댁”이라고 불러 주었다. 이제는 이
마을의 거의 반수가 교인이라는 조
리를 들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
렸다. 저녁에는 그 옛날처럼 마당
에 자리를 하고 교인들이 함께 모
여서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사랑의
이야기로 밤 이슬이 촉촉히 내리고
나의 눈에도 어느새 눈물이 이슬렸
다.

다음 날 나는 어머니의 옛사랑과
전하여 주신 신앙유산을 한아름 안
고서 교인들의 찬송을 받으며 발걸
음을 옮겼다. 그 옛날 어머니를 모
시고 교회에 다니던 오솔길을 멀리
바라보면서.....





해외선교지 · 선교사를 위한 우리의 기도



● 인도네시아-서만수 선교사

지금 인도네시아의 선교형편은 5월 4일 총선거를 앞두고 회교도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부측과 야당측의 '강경일변도의 유세로 극도로 악화일로에 있다. 한편 선교사님은 5월 24일부터 미국 윌리엄 캐리대학에서 열리는 한인 선교대회에 초청을 받아 약 1개월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안식년도 없이 11년간을 수고하시느라 찾아보지 못했던 인척들을 만나보실 계획이시다. 본부에서 여행에 필요한 여비일체를 부담하게 되며 미국에서는 당회장님 일행과도 잠깐 합류하시게 될 것이다. 회교도들이 과반수를 넘어 압도적인 인도네시아의 정국변동에 유의하시면서 성도 여러분께서는 인도네시아 소식을 읽으시는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1. 정국 안정 위한 간담회

총 선거를 앞두고 정국 안정에 대한 교계 지도자 및 자카르타시 당국자간의 간담회가 3월 19일에 있었는데 선교 선교사의 대표자로 구교 및 각 교단의 대표자들과 함께 참석. 인도네시아의 역사적 배경과 국가의 방향, 급증하는 인구 문제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

2. 한글 성경도 수입금지

인도네시아의 선교부의 중요 사업으로 75년도부터 성경을 무료로 배포해 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 일로에 있었다. 그러나 79년에 인도네시아어 성경의 외국으로 부

터의 수입이 금지되어 인도네시아 성서 공회에서 인쇄를 의뢰하여 좀 저질의 것이나마 대체하였는데 이번엔 3월 24일 인도네시아에 취업하고 있는 한국인 전도를 위해 수입 신청한 성경전서 1,000권이 외국어 성경도 전면 수입금지 되었다는 관계 당국의 통보와 함께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질충중이나 어려울 것 같다는 현지의 소식.

3. 현지 사역자를 위한 세미나

금년도 현지 사역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4월 2일부터 3일까지 중부 자바 쏘로에서 김의환 목사를 모시고 성료, 총선거 관계로 개인 여행과 집회가 극히 어려움에도 본 선교부 사역자 뿐만 아니라 원근 사역자까지 72명이 정식 등록을 하고 참석하였으며 부흥집회 시간에는 400여 평신도들이 함께 참석.

4. 개척지 동역자 소식

① 세다유 지역의 다니엘 카르노 전도사는 폐결핵 중에 있었으나 건강을 회복하고 활약중. 대지 기증 받고 건축허가 신청 예정중이다.

② 위노꺼르도 개척지를 후원하던 한국의 교회가 사정상 지원을 못하게 되어 예배당 건축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③ 동부 자바의 뿌리바디 전도사는 인근 촌락의 전도를 위해 자전거 1대가 꼭 필요함. 뜻있는 단체나 독지가가 있으면 연락을 바라고 있는데 미화 138달러 (약 10만원) 가 소요된다.

④ 파사디나 한인교회 청년들이 오지 개척에 참여하여 뿌차왕이 교회 지원을 담당케 되었다.

⑤ 볼티모어 한인 중앙 장로교회 청년회에서 시간외의 아르바이트 수익으로 피운한 촌락 신규 개척 교회 후원을 동역기로 되었다.

[기도제목]

① 회교도들의 과열로 악화 일로에 있는 인도네시아 선교환경이 선거후에 다시 개선되도록.

②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현지 개척교회와 사역자들을 영육간에 주께서 힘을 주시도록.

③ 성경 무료 배포사업이 확장되고 현재 부딪혀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④ 불안정한 정국속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의 영육간의 강건과 하시는 일의 형통을 위해.

⑤ 한인 선교대회에 참석하는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무사히 일 마치고 귀임하시도록.

● 애굽-이준교 선교사

[기도제목]

① 현지인 교역자 및 전도인 통한 애굽 선교의 길 확장되도록.

② 선교 협력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협력사업의 성공적 발전위해.

③ 한인교회 및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을 위해.

● 서독-육호기 선교사

수백킬로나 떨어져 있는 세 교회를 동분서주 하시느라 선교사님도 사모님도 몸이 악화되어 애로움을 겪고 계신다. 퇴원하셨으나 아직도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고 계신다.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 위해 특별히 기도를.
- ② 뷔즈부룩·비스바덴·하나우 세교회의 안정과 발전위해.
- ③ 선교관의 매입·한독산송가 출판동 선교사업의 확장과 발전위해.
- ④ 유럽 선교위해 더 많은 선교사가 파송되도록.

● 칠레 - 유재일 선교사

(기도제목)

- ① 칠레인 개척교회 후원을 통하여 칠레선교의 길이 넓어지도록.
- ② 양로원, 고아원등 후생복지사업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크게 결실하도록.
- ③ 한인교회 심방 및 목회활동을 통하여 교회가 안정되고 부흥하도록.
- ④ 새로 짓는 교회의 건축 허가 와 순조로운 공사의 진행과 자금이 조속히 조달되도록.
- ⑤ 현지선교의 확장위해.

● 인도 - 엘리야 겔간 선교사

(기도제목)

- ① 신혼의 선교사님 가족과 부모님을 위하여.
- ② 카쉬밀 복음선교회의 발전과 인도 복음화의 확장위해.
- ③ 잠무-카쉬밀 교역자회의 순탄한 준비와 풍성한 열매위해.
- ④ 카세트 테이프를 통한 선교 및 매스컴 선교의 길이 더욱 넓어지도록.

● 파라과이 - 김재창 선교사

(기도제목)

- ① 불안한 정국과 경제 불안 속에서 안정된 교회발전과 부흥위해.
- ② 이민온 교포들의 성공과 선교의 발전위해.
- ③ 선교사님 가족의 건강과 자녀 교육위해.

홍종만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암으로 귀국하여 요양중이신 홍종만 선교사님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어 거동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홍콩과 중공 선교를 위하여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며 수고하신 종을 위해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베풀어지도록 천교우 여러분의 간절한 특별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하여 한인교회와 한화선교협력회 및 이만열 선교사님과 영업택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아르헨티나 - 백성룡 선교사

선교여건이 매우 불안정한 가운데 영국과의 포클랜드 분쟁으로 전쟁 상태에 들어가게 되어 성도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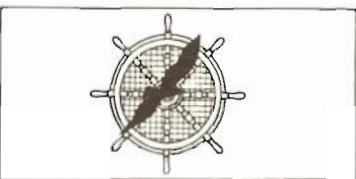
(기도제목)

- ① 불안한 전쟁상태 속에서 선교사님 가족의 안전과 건강위해.
- ② 한인 교회의 안정과 부흥위해

● 일본 - 유병세 평신도 선교사

(기도제목)

- ① 선교사님 의료 봉사 와 바쁜 업무간의 복음전도 활동에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도록.
- ② 히로이즈미·호로오 두 교회의 발전과 복음의 열매 풍성하도록
- ③ 사모님 부인 성경반과 성도교제에 성령의 역사와 열매 풍성하도록.



● 본부 소식

1. 김성완 선교사

브루셀 한인교회 초청을 받아 출국 수속중이신 선교사님은 지난달 30일 한남동으로 이사하심. 5월12일(수)총회임명 받아 파송 예배를 드릴 예정임.

출국 수속과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김재창 선교사 사모님

성도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로 김재창 선교사님 사모님이 건강을 회복하시고 5월 5일 출국 선교지로 귀임하심. 선교회에서는 교육용 환등기 1대를 기증하고 병원 치료비 일부를 부담함.

3. 김영희 목사

언어 훈련을 강화하시며 미국 교회의 선교활동 소식을 전해 오셨다 "매주일 오전 예배 순서중 헌금시간에 자기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매주일 3명씩) 정식으로 주보에 선교사명을 기록해 놓고 그 외에 그분들의 최근 선교활동을 기록한 간단한 선교보고 내용의 팜프렛을 주보와 함께 준비해 놓고 전 교회가 기도" (그 교회는 48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전국 목사·장로기도회 성황

— 일심으로 복음위해 협력다짐 —

제19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지난 5월 4일부터 7일까지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개최되어 한 마음으로 교단 부흥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49개 노회 1천여명의 목사·장로들이 참가한 동 기도회에서는 총회장 최성원목사의 개회예배 설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최성원 총회장은 성경 빌 1:27~29절 봉독후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란 제목의 설교에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의 종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합심 기도하므로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지혜를 배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동 기도회는 새벽기도회, 오전·오후 특강, 저녁 부흥회등으로 진행되었는데, 기간중 「의령사진」 유족들을 위한 헌금도 실시, 축사에서 60여만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또 무인가 신학교에 대한 고발조치에 대하여 이의시정을 요구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진정서와 서명날인등의 행사도 가졌다.

제14회 연례 국가 조찬기도회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

제14회 연례 국가 조찬기도회가 지난 5월 4일 오전 8시 신라호텔 다이나스티홀서 교계 지도자 및 삼부요인, 그리고 주한 외교관등 9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박정수 국회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맡은 임옥목사(영암교회시무)는 「이 나라를 고쳐주소서」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우리간의 체질화된 불신풍조와 병들어 멎은 이 사회의 병리 현상을 치료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 치료방법으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사역(仲保事役), 그리고 기도하는 일만이 이 땅을 고치는 최선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도하는 사람에겐 영감이 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헌신이 있으며 그의 섭리에 복종하는 용기가 있다」고 말하고 「세상이 어두워짐은 빛된 자의 그 빛이 꺼진 때문이요, 민족의 부패함은 소금된 자가 그 맛을 잃은 때문이요, 국가가 융성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음은 제사장된 자의 중보의 예배가 진실치 못한 때문이요, 대적이 침입한다면 파수꾼된 자가 졸고 있기 때문이

요, 국민이 병들어 앓는다면 중보자의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고 역설했다.

전국 C·E 33차 총회

회장 김중수 장로 선출

전국 C·E 연합회 제33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9일 부산 초량교회당에서 회집되어 제 33대 회장에 부산 C·E 소속 김중수 장로 (40세·부광교회)를 선출했다.

43개 C·E에서 589명의 총대가 참석한 동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명예회장 류성고 △회장 김중수 △부회장 김부영, 정동만, 홍주철, 이병문 △서기 박금열 △부서기 최연식 △회록서기 김기중 △부회록서기 김종평 △회계 배영화 △부회계 조창주 △총무 김기원 △감사 강석준, 송운엽, 오임종, 신동근 △협동총무 오성종, 김창대, 이신호, 정승복, 남대희, 김용원, 이종근, 박영호

31일부터 동도교회당서

수양회 위한 교사강습회

전국 주일학교연합회 서울지구 연합회는 오는 5월 31일부터 4일간 동도교회당에서, 중·고·대·청년을 위한 수양회 교사강습회를 개최한다.

유·초등부 치중의 주교강습을 지양하고 강습회 교육의 질을 높이며 예산절감을 목적으로 서울지역 11개 주교 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되는 동강습회는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강습회의 주강사는 최훈목사이며, 각 교과 과점마다 전문 강사들이 강의할 맡게 된다.

6개 신학교 인가

文教部 1교단 1개교 원칙에 따라

문교부는 지난 4월 30일 6개 신학교를 인가하여 83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했다.

문교부 당국자는 「인가신청 신학교중 1교단 1개교를 원칙으로 신도수 및 시설을 감안하여 6개 신학교만 인가조치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신학교는 다음과 같다.

△대전신학교(이영수) △서울장로회 신학교(강신명) △협성신학교(박근수) △수도침례신학교(김장환) △성화신학교(신신목) △합동신학교(정봉석)



이달의 교우동정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4월의 새교우

● 1 지구

미아 2구역 차유선
광희 1구역 김진숙
수유 3구역 남영경
미아 2구역 백지선
상계 1구역 오훈삼
수유 1구역 박선주
삼선 1구역 이영준
월곡 2구역 이종대
상계 2구역 임근희
미아 7구역 임춘식
미아 7구역 한무순
안암 1구역 정진국
보문 2구역 유용주
광희 2구역 이말녀

● 2 지구

구리 1구역 이한세
목동 2구역 유현숙
목동 2구역 정금자
양우 2구역 장순영
하월 1구역 이경옥
상봉 1구역 정순화
행당 1구역 염창호
전호 2구역 백창금
임사 A구역 김민구
군자 1구역 박찬순
돈촌 1구역 전혜경
홍익 1구역 임문순
돈촌 1·3구역 이찬중
양우 2구역 장순이
구의 2구역 조귀남
연목 2·3구역 오경식
목동 1구역 장충균
목동 2구역 서원모
홍익 1구역 이정숙
홍익 1구역 천혜봉
구리 1구역 전윤신

장안 1구역 정성선
장안 A구역 서문순
구리 1구역 유경자

● 3 지구

신당 3구역 이영은
자양 3구역 이옥선
성수 3구역 김정순
행당 2구역 김진경
광희문 2구역 김영실
잠실 5구역 윤송숙

● 4 지구

학동 1구역 이주리
보광 2구역 송정임
한남 2구역 정영선
목장 2구역 유금희
보광 1구역 윤순이
신사 2구역 김정열
성남 1구역 이세남
성남 1구역 오승훈
성남 1구역 김금만
목수 1구역 신화자
성남 1구역 이기철
금호 3구역 전병무
신사 2구역 홍경숙

● 5 지구

반포 3구역 한미리
안양 2구역 임근발
안양 2구역 최상봉
주공 3구역 심영숙
삼도 2구역 원성수
후암 2구역 김애경
필동 7구역 한길순
필동 8구역 박연희
안양 2구역 우영환
안양 2구역 조종연

상도 1구역 김남중
신길 1구역 김옥희
상도 1구역 조대섭
상도 3구역 이승원
상도 3구역 박병래
사당 2구역 정범근
관악 1구역 박삼출
봉천 4구역 전상보
안양 2구역 강신천
신림 1구역 임선자
방배 2구역 장재필

● 6 지구

정파 1구역 심화섭
광명 1구역 박옥희
염리 1구역 김경연
염리 2구역 김영연
인현 3구역 이수경
화원 1구역 심화섭

진양 2구역 김태순
화원 1구역 김미영
성신 1구역 배영순
성신 1구역 김규환
목동 1구역 송기영
역곡 1구역 김준표

● 7 지구

응암 1구역 현상필
동송 1구역 김정호
장신 2구역 김은혜
조동 1구역 조수용
송인 1구역 강인철
남가좌 1구역 김정남
남가좌 1구역 박종근
을지 2구역 김영옥
청운 1구역 이화룡
숙인 2구역 이미숙
정신 2구역 신홍수

결혼

- 강길수군 (강철형, 왕인숙씨 아들)과 박화순양 1일
- 이대용군 (이대길 선생 동생)과 신정애양 3일
- 김경문군 (김봉순 권찬 아들) 3일
- 최선희양 (최기영씨 딸) 13일
- 전명수군 (전선봉씨 아들)과 마미화양 (마성락장로, 김춘희집사 딸) 13일
- 지성철군 (아현구역)과 유묘종양 (아현구역) 14일
- 이경삼군 (시흥구역)과 한혜숙양 (한영천목사 장녀) 15일
- 형인광군 (마포구역)과 김영자양 (노반 집사 딸) 17일
- 박영애양 (김의영권사 딸) 13일
- 최공찬군과 이은순양 (이봉섭 장로 문명숙 권사 딸) 20일

- 장현식군 (안암구역 권영재씨 아들)과 김순정양 20일
- 이상원군 (서초구역)과 원은희양 23일
- 정재희양 (정래완 집사 딸) 24일
- 이정자양 (대조구역) 24일
- 최봉호목사와 김난희양 (김용식씨 우순성집사 딸) 27일
- 박삼규군 (잠실구역)과 백민자양 (김동의집사 딸) 28일

별세

- 김산석 명예직권사 (천호구역) 30일
- 이계순권사 (김종석장로 모친) 30일
- 유영영집사 (유남국강도사 부친, 오희명권사 부친) 1일
- 오정례씨 (광화문 2구역) 5일
- 송재복씨 (송근호선생 부친) 8일
- 황화경씨 (서초구역 황성숙씨 부친) 8일
- 이재도군 (창동구역 이대봉씨 아들) 14일
- 박순례씨 (천호 2구역 유희재씨 모친) 13일
- 박순정씨 (연지구역) 18일
- 김명식씨 (창동 7구역 김금순씨 부친) 19일
- 김학재권찰 (가회구역) 22일
- 김양백씨 (독산구역 김영숙씨 시부) 26일

이민

- 황윤숙 (진양구역) 도미
- 신윤순 (자양 2구역) 도미

전화번호변경안내

우기전 한의원

원장: 우기전 장로

292-8873

성동구 홍익동 202
경찰병원입구



교회소식

총동원 전도 활발히 전개

매 금요일 교회에 모여 기도회

장로 20명 피택

교회는 지난 4월 25일 1, 2, 3, 4, 5부 예배시 투표한 장로 선거에서 20명이 피택됐다.

피택된 20명은 다음과 같다. (가나다순)

강모용 · 49 (노년부 부장·제직회부서기)

강은원 · 46 (초등부부장)

김광신 · 41 (고등부부장)

남선우 · 40 (선교부부장)

박승준 · 48 (중등부부장)

박인세 · 58 (장년새신자 2 부부장)

박재용 · 48 (전청년부부장)

서동석 · 39 (고등부부장)

서일영 · 56 (장년새신자 1 부·교사·제직회 십일조 회계)

송기홍 · 47 (장년새신자 1 부 부장·제직회 부서기)

안익태 · 52 (교육위원회 서기)

엄필성 · 48 (새가정부부장)

오정현 · 44 (산전전도 교육부부장)

윤인현 · 51 (대학부부장)

이 훈 · 42 (제 3 성가대 대장)

정광호 · 48 (장년부부장)

최대원 · 50 (장년부부장)

최상규 · 50 (유치부부장)

최성현 · 43 (유년부부장)

하대선 · 55 (청년부부장)

교사 단기수련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6월 2일까지 매일 저녁 본당에서 교사 단기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금년들어 2차로 열리는 본 단기수련회에는 한성교회에서 시무하는 김진택 목사가 강사로 수고하시게 된다.

5월, 총동원 전도의 달을 맞아 교회 전체는 온통 전도의 열기로 쌓였다.

4월 26~30 일까지는 매일 오전과 저녁으로 나누어 하루 2시간씩 전도훈련을 실시했고 각부 주일학교에서도 전도에 관한 설교, 특강과 함께 계획을 세워 노방전도, 축호전도, 교도소, 유치장 등을 찾아 전도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계속하게 될 이 전도

를 통하여 교회는 교회내의 각 부서와 전구역의 질적, 양적 성장에 기여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로 「태신자」를 전도 대상으로 삼고 이번 기간에 개인이나, 구역에서 태신자 전도를 중점으로 펼치게 되며 매주일 새신자는 예배시간에 환영하는 순서도 가진다. 5월 한 달동안 새신자의 접수 및 안내를 전도위원회 산하 각지회의 임역원들이 수고하고 있다.

5월-가정의 달

각 부서에서 행사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 부서에서 가정의 달 행사를 하고 있다. 5월 첫주 어린이 주일에는 주일학교 영아부, 유치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중등부는 5월 2일 학부모·교사·학생이 함께 모여 가정과 교회, 학교에 마련된 내용의 특강을 이진숙교수(덕성여대)를 강사로 모시고 듣고 서로 좌담하는 시간을 가져 가정·교회·학생간의 이해를 돕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또한 청년부는 5월 8일 「경로회」를 열어 교회내 70세 이상의 노인

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사랑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새가정부에서 특별강좌도

한편 주일학교 새가정부에서는 5월 6~8일 매일 저녁 7시부터 「결혼을 원하는 젊은이들과 신혼부부 및 자녀를 둔 그리스도인 가정을 위한 특별강좌」를 양은순 교수(대한신학교)를 강사로 모시고 열렸다.

또한 5월 9일(둘째주일은)은 부모님주일로 지키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부모님들께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기도 했다.

□ 인사이동 □

1. 교육위원회

① 임명

어 새 부 손경순(여) 정교사
영 아 부 남명자(여) 임시교사
장새 2부 이도영(여) 정교사
장새 2부 손숙자(여) 정교사

② 퇴임

어 새 부 송명희(여)
어 새 부 송영록(여)
어 새 부 김정자(여)
중 등 부 양한주(남)

□ 토막소식 □

*...어린이 새신자부는 16일 백옥자 선생의 연구수업이 있다.

*...영아부는 5일 태능 푸른동산에서 반별 친교회를 갖고 찬송가부르기 대회를 가진다.

*...유치부는 12일 어린이 대공원에서 자연학습을 갖고 22일 경복궁에서 반별 친교회를 가진다.

*...유년부는 1일 종묘와 태능에서 반별 친교회를 갖고 23일 교회 부근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한다.

교회소식



*...초등부는 5월 한 달을 반별 친교의 달로 정하고 각 교사의 가정에서 반별 친교회를 갖는다. 16 일에는 새가정부실에서 한영준 선생의 연구수업이 있을 예정이다.

*...중등부는 23일 장충공원에서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30일 주일을 총동원 주일로 지킨다.

*...고등부는 4월 30일과 5월 1일 양일간 1학년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가지고 30 일에는 정기총회를 연다.

*...대학부는 1일 기도원에서 임원반장 수련회를 갖고 16 일에는 리차드 킬 목사님을 모시고 특강이 있다. 24 일에는 상담실에서 학습평가 회를 가질 예정이다.

*...청년부는 8일 경로회를 열고 23 일에는 학생특강, 30 일에는 신입회원 환영회가 있다.

*...장새 1 부는 9일 십계명 외우기 대회를 열고 23 일은 반별 친교 회로 모인다.

*...장새 2 부는 9일 세례문답을 실시하고 30 일엔 시청각 교육으로 영화 '순교보'를 상영한다.

*...장년부는 5월 한 달을 전체 학생 심방의 달로 정했다. 23 일은 성경퀴즈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노년부는 2일 반별 친교회를 가진다.

*...산업전도교육부는 2일 황정숙 집사님을 모시고 '생활 속에 나타난 직장인'이란 제목의 특강을 갖고 9 일에는 한송규 선생의 연구수업이 있다. 16 일에는 찬송가 경연 대회를 열고 지하철 역에서 전도를 할 예정이다.

*...선교부는 14일 새성전에서 철야기도회를 갖고 28일부터 30 일 까지 박아론(총신교수)교수를 모시고 특강이 있다.

*...새가정부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5월 6일부터 8일까지 양은순 집사(대한신학교 강사)를 모시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란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다.

각 종 통 계

1982. 4. 4(매주 첫 주 기준)

충현기도원 안내

<교통편>

1. 교회 버스편

- 매 주일 저녁예배후
- 매주 수요일예배후 9 시에 교회앞에서 출발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 버스터미널에서 이천·여주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사무소앞에서 하차

3. 시내버스편

- 66번, 57번, 239번을 타고 <성남종합시장 앞에서 하차>하여 광주행 3 번 버스를 타고(광주에서 하차)광주에서 이천 방면행 완행버스를 타고(초월면사무소앞(대쌍))에서 하차

<주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화> 교환 101번을 거쳐서 광주 초월14번을 신청

구	분	남	여	계		
예	주 일 낮	I 부	205	330	535	총 세 대 수
		II 부	453	1,070	1,523	
		III 부	401	786	1,187	
		IV 부	179	412	591	
		V 부	237	508	745	
배	주 일 저 녀		220	464	687	신
	삼 일 저 녀		168	343	511	
주 일	어 린 이 새 신 자 부	영 아 부	26	11	17	집 별
		유 처 부	193	142	335	
		유 처 부	135	139	274	
		유 처 부	203	234	437	
		초 등 부	228	209	437	
		중 등 부	189	189	378	
		고 등 부	125	148	273	
		대 학 부	71	86	157	
		청 년 부	63	100	163	
		장 새 I 부	47	92	139	
교	학	장 새 II 부	36	82	118	교 인
		장 년 부	27	305	332	
		노 년 부	42	119	161	
		산 업 교 육 부	16	89	105	
		선 교 부	27	78	105	
		새 가 정 부	13	33	46	
		합 계	3,304	5,969	9,273	
현	황	교인	남		4,073	신
			여		5,937	
		총수	남		10,010	집 별
			여		2,259	
		새례	남		3,780	입교
			여		6,039	
		유아	남		631	교 인
			여		492	
		새례	남		1,123	현
			여		321	
황	원입	학습	남		403	교인
			여		724	
		원입	남		862	황
			여		1,232	
		교인	남		2,094	황
			여			
		합	남			황
			여			
		계	남			황
			여			

5월의 행사



* 교 회 *

2 일 / 어린이주일
7 일 / 전체철야기도회
9 일 / 아버지주일
21 일 / 임시당회

* 전도위원회 *

1 일 / 산업전도회 조찬기도회
9 일 / 남전도회 월례회
16 일 / 여전도회 월례회 · 해외
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23 일 / 전도위원회 월례회
30 일 / 선교회 월례회

* 교육위원회 *

8 일 / 경로회
16 일 / 교육위원회 월례회

* 심방위원회 *

2 일 / 제직회
9 일 / 권사회 월례회
16 일 / 심방위원회 월례회
23 일 / 구역권찰회

* 건축위원회 *

30 일 / 건축위원회 월례회

* 자산관리위원회 *

16 일 / 자산관리위원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

2·16 일 / 재정위원회 월례회

* 출판국 *

9 일 / 출판국 월례회
16 일 / 월간충현 5월호 발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 월간충현 편집위원 □

위 원 장 / 조 현 명

편집위원 /

김 하 진	조 선 군
김 차 생	손 경 수
오 태 용	김 종 주
김 정 태	이 형 수

1982년 5 월호

월간 충현

The Monthly Chung Hyeon

제10권 제5호

통권 제99호

편집하고 나서

*... 오월은 전도의 달로 가정의 달로 온통 교회가 불비고 있다. 월간충현에서는 가정의 달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특히 「노인」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어 보았다.

일선에서 노인들을 심방하시는 심방위원회의 교역자들에게 노인심방을 마치고 난 후 느낀 점들을 들어 보았다.

우리 가정에 노인이 없는 가정이 없을 터인데 과연 노인에 대해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각자가 자신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싶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시리즈의 4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가정관」은 다루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도 많겠지만 아는 이야기가 자주 반복되고 들려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좀 더 수준높은 삶을 살게 되리라고 확신한다. 가정의 달에 한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글이라고 생각된다.

*... 지상특강 난에는 지난 2월 교역자 수련회시 행한 이호문목사의 「교회성장과 전도」를 요약, 정리해 본다. 전도의 달을 맞으며 전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중요성등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최근에 많이 거론되는 「전화론」 문제를 한번 소개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2년 5월 10일 인쇄

1982년 5월 16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편집부장 / 이 형 수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1000-□□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5가 36

전화 / 260-3407 · 3408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교회는 4월11일 부활주일을 지키며 주님의 부활을 축하했다. 이날 저녁에는 제이성가대가 부활절 축하 음악예배로 드렸다.〉



〈5월 운동원전도의 달을 맞아 교회는 온통 전도의 열기로 가득했다. 매주 금요일 교회에 모여 구역권찰기도회를 갖고 전도를 나갔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중등부에서는 5월2일 오후 학부모, 교사, 학생 좌담회를 갖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영아부, 유치부는 5월2일 어린이주일에 목사님들이 어린이 각 개인 개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는 순서를 갖기도 했다.〉



〈또한 주일학교 새가정부에서는 미혼의 남녀와 신혼 부부,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가정 특별 세미나를 5월 6~8일까지 가져 성향을 이루었다.〉



〈5월8일 어버이날을 맞아 청년부에서는 교회내 70세이상의 어른들을 모시고 경로회를 가졌다. 영아, 유치부의 꼬마들의 재롱에 맘껏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실로
못가에서

노부모님들은.....

노부모님들의 주름진 연륜의 무늬 속에

고귀한 희생이 숨겨져 있고

조용한 미소 속에는 모든 것을 삼키고도

유유한 바다처럼 포용의 힘이 있고

흐린 눈빛 속에는 쌓이고 쌓인

경험의 연륜과 달관된 투시력이 있고

낮은 음성 속에는 하나님의 팔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가 담겨져 있고

가슴 속에는 자녀들의 영혼까지 사랑하는

전도자의 뜨거움이 있고

거치른 손길은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위대한 봉사자의 손길이며

흔들리는 발걸음은

시온의 대로를 통과하는 용자의 행진이며

조용한 자태에는

오랜 신앙의 체험적 이해와 경건의 능력이 서려 있으며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5월의 빛속에 만발한

흰 꽃송이처럼 소중한 선물입니다.



〈정복인 전도사〉